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북자<sup>1)</sup>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닐 만큼 그 동안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이들의 성공적 적응 및 정착에 대한 효과적 지원은 지속적인 당면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1994년 급격한 탈북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이후<sup>2)</sup>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고 일정부분 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욕구(needs)는 성별, 연령별,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특화되고 세분된 지원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지원활동의 결과가 예상만큼 만족할 수준의 것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족단위의 탈북자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

- 1) 탈북자의 공식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탈북자이든 북한이탈주민이든 정작 당사자 자신들은 이 호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귀순자’ 혹은 ‘자유북한인’등의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한국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탈북자’란 용어로 통일하려 한다.
- 2) 국정원과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한해 20~50명 정도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1999년경에 이르러 150여명, 그리고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약 320여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추계로 최소한 2005년경에는 한해동안 약 3000여명까지 입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사회부적응문제가 매우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관한 기초조사나 대응프로그램의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응시설에서는 성인 탈북자를 위한 적응교육으로 치중해 왔고 최근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거주지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탈북자의 사회부적응문제는 대응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를 보조하여 몇몇 민간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탈북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성공적 적응과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매우 힘들어하며 다양한 부적응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탈북 청소년은 대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한다. 중·고등학생 탈북 청소년의 경우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힌 후부터는 학교 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도 하지만, 초등학교생이나 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위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적응초기 한동안은 수업내용의 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며 심지어 급우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 겉돌게 된다. 탈북 청소년은 특히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마다 용돈 문제로 부모님들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남한친구들의 쏘쏘이에 주눅들 때가 가장 싫은데, 부모님들은 '애가 남한에 오더니 못된 것만 배워서 쏘쏘이만 헐떡졌다'고 나무라기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 온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청소년도 상당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이렇듯 다양한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문제의 전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에 필요한 특화된 적응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사회에서 정착을 시작하는 그들 자신들의 적응과정상 문제, 즉 부

적응의 행태와 심리적 스트레스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정부의 대응책은 미비하거나 단편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적응의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문제별로 유형화하여 적응과 정상의 현상들을 이론화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부적응 행태에 근간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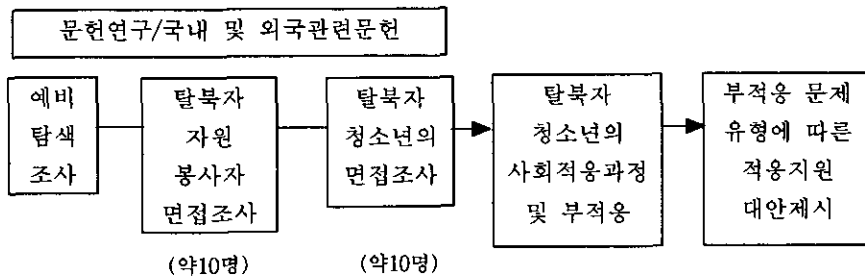
첫째, 외국의 이주민(international migrants) 청소년의 사회적응 일반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확보하였다. 여기서는 난민(refugee)과 이주민(international migrants) 신분으로 최종 정착지(destination country)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문화적 적응스트레스, 부적응상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남한거주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문제에 대한 이해와 유형분석을 시도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의 다양한 부적응 사례 및 문제들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탈북 청소년 적응행태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풍부하고 밀도있게 묘사·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과로 분석된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유형을  
기반하여 이들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이 필요한지 토  
의할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의 도식화

이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조사연구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 (1) 문헌 연구

이 문헌연구를 통해서서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각종문헌들에 대한 수집,  
분석,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 기존의 탈북자 관련 연구논문: 개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경험  
과 지원방향에 관한 논문, 청소년과 가족탈북자 적응의 경험에 관한 논문

☐ 외국의 이주민 혹은 난민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문제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논문

☐ 북한의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교육, 그리고 사회화에 관한 연구  
논문,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논문

☐ 사회에 정착한 청소년탈북자 대상 자원봉사기록서

## (2) 실증적 조사연구

청소년 탈북자에 대한 질적 조사 (심층 면접조사 in-depth interview), 청소년 탈북자 대상 자원봉사자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양적자료분석 대신에 질적자료의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화된 가설을 세우고 주요개념들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할 만한 토대가 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모집단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적조사시 자료의 통계분석에서 풍부한 분석을 행하기 힘들고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등을 비용사정상 행하기에 제한성이 많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의 내용을 조사대상의 수는 적더라도 세밀하게 그려보는 목적으로는 질적조사방법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두 가지 실증적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청소년 탈북자 대상의 질적 조사

- 조사대상인원: 김일성 사망 후로 소위 '식량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발생한 1994년 이후 국내 입국자로서 2000년 12월 현재까지 정부교육시설을 퇴소한 탈북자로서 약 13세 이상(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부터 21세까지의 연령(대학교 재학 1,2학년까지 포함하는)에 해당하는 자<sup>3)</sup>가운데 10여명을 임의표집하여 조사.

- 조사방법: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참가의사 여부타진후 방문하여 1-2

---

3) 탈북자의 경우 청소년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원래 일반인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데다 탈북자들을 그들 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실행시 좀더 구체화 될 것이나 이에 관한 보다 부가적인 설명은 이 연구 계획서의 뒷부분 첨부물2를 참조해주기 바람.

시간동안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연구자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대학원생에 의하여 주로 서대문에 위치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협조로 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면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함.

- 조사시기: 2001년 7월-11월

- 조사내용: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질문자가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주의 생활을 이야기서술(story telling)식으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청취했다.

주요주제: 청소년 탈북자의 인구학적 정보/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감 평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감표현/ 가족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탈북자 자신의 사회적응 정도와 내용/ 중국 등 제 3국 체류시 경험/ 학업수준, 학교생활과 교사 및 교우관계/ 남한 청소년집단에 대한 동일시 정도

## ② 청소년 탈북자대상 자원봉사자 전화면접조사

- 조사대상인원: 원래 10명을 목표로하였으나 6명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를 전화면접하였다. (현재 민간/종교단체들에서 청소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추측컨대 40-60명 정도로 파악됨)

- 표집방법: 임의 표집을 하되 탈북청소년과 접촉이 많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리라고 생각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하였으므로 의도적 표집이라 할 수 있다.

- 조사방법: 전화면담조사 (약 30분간)

- 조사시기: 2001. 8월 -10월

- 조사내용: 자원봉사자의 인구학적 정보/ 자원봉사자가 경험한 청소년 탈북자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인식위주로 함4).

4) 전화면접시 활용한 반 지시적 질문의 내용은 조사방법의 설명시 다시

### 3.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실증적 조사(청소년 탈북자 심층면접조사/ 청소년 탈북자대상 자원봉사자 전화면접조사)결과를 제시하게 될 이 연구가 완성되면 탈북 입국자 가운데 일정비율(15% - 30%정도<sup>5)</sup>)을 차지하며 앞으로 계속 그 수효가 증가할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행태, 욕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와 지식은 남북한통일시 남북주민이 통합되어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데 기여한다. 참고로 2000년 한해동안 입국한 탈북자 312명중 10세 미만의 연소자는 11명, 10-19세 사이의 연령대에는 51명이 차지하고 있었다(통일부 내부자료, 2000). 향후 매년 탈북 입국자의 숫자가 2-3배 이상씩 증가하리라는 탈북자 사업전문가들의 예상과 과거 5-6년 사이의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연령대의 탈북자들은 올해에 100명 이상, 내년에 200-300명 이상 증가하다가 한해 탈북 입국자가 약 4천명가까이로 예상되는 2005년경에는 약 1000명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소년 탈북자에 대한 기초적 적응행태 분석은 매우 시급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탈북자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을 가능케 한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교육은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적응시 초래될

---

제시됨. IV장의 실증조사 분석내용에 속한 '2. 분석을 위한 질적 자료의 소개'를 참조하기 바람.

5) 이 수치는 1999년에서 2000년 12월까지 정부 사회적응교육시설을 거쳐 간 10기수 358명의 통계자료에 근거. 자세한 내용은 글 뒷부분 첨부물 3을 참조하기 바람.

수 있는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데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셋째, 청소년 탈북자의 적응행태 및 효과적 적응자원 대안 형성은 향후 탈북자 연구 연령별, 특성별로 특화되는 연구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며, 탈북자의 1년 입국숫자가 3천-4천명정도 예상되는 향후 3-4년 뒤에는 소집단별로 특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한사회에 하나의 소수그룹(minority)으로 존재하는 탈북자와 또한 청소년 탈북자에 관한 연구와 지원활동은 앞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매우 큰 주제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탈북자,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해외교포 등의 정착과 생존, 차별, 사회적응, 사회통합, 소외, 사회적 배제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때, 마이너리티를 위한 사회복지방법론 개발에 초기적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탈북자 문제의 소개

### 1. 재외국 탈북동포의 문제상황<sup>6)</sup>

1994년 김일성 사망시기 즈음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동포들은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로는 1-3만 명 정도이고, 민간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미얀마 등), 몽고 등지를 포함하여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된다. 이 통계는 중국 등의 탈북 동포를 돕는 선교사, 중국 공안국, 북한 보위부, 사회 안전부 요원 등으로부터의 정보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박요셉, 2000). 1999년, 불교단체인 '좋은 벗들'이 중국에서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탈북동포들의 탈북 목적은 대부분 식량난과 생필품 난으로 인한 단순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탈북동포들은 공식적인 직무로 왔다가 정착하거나 보따리 장사꾼으로 주기적인 월경을 하는 사람들, 범죄 혹은 책임추궁으로부터의 도피한 사람들, 혹은 사상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다.

최근 1-2년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북한내부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탈북동포들의 급격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국경지역의 월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재외국 체류자의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탈북의 역사적 배경이래야 사실 과거 5-6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간이 짧다. 1990년대 초·중기에 산발적 탈북동포들의 규모는 1996년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여

---

6) 재외탈북동포의 문제상황에 대한 설명은 박신호(2000), 좋은 벗들의 조사결과 발표물(1999), 그리고 윤여상(1999)을 참조하기 바람.

1997년 최대숫자의 탈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무렵 탈북동포의 대부분은 식량난민으로서 여자들의 인신매매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최근 10세 전후의 고아탈북동포(소위 꽃재비들)들과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한편으로 탈북동포의 지역적·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화되는 것(고급간부, 사회 안전부, 기쁨조, 농장지배인, 군인, 교수 등까지도 하층민에서 고위층까지)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외국 탈북동포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인권과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을 연명하고 최근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탈북동포 단속과 송환조치에 이들에 대한 인권의 유린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즉, 재외 탈북동포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경우, 매매혼, 인신매매(몸종), 매춘강요,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인남성 탈북동포의 경우 농장과 식당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며, 체포와 북한으로의 송환의 위협을 받기로 착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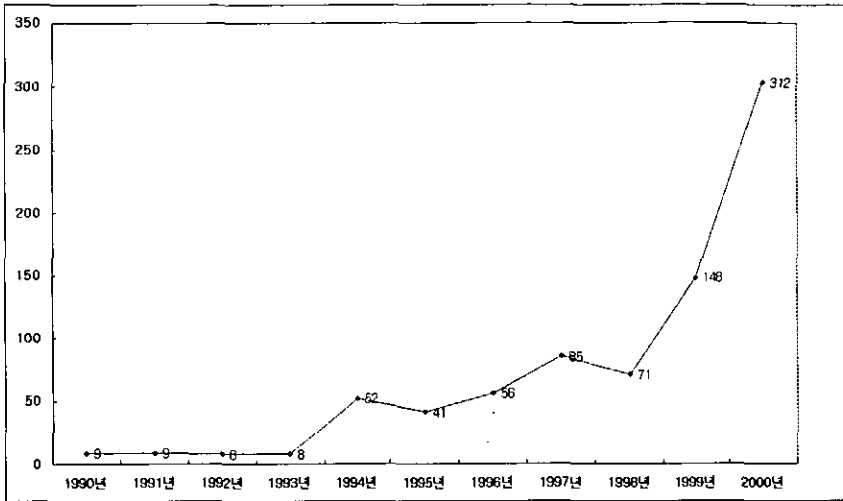
이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조선족과 남한의 민간종교·시민단체가 맡고 있다. 정부는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적 관계로 직접적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한국으로의 입국시키기 위한 안내활동을 한기총, 좋은 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 2. 국내 탈북동포의 규모

<표 11-1> 2001년 5월 현재 국내탈북자의 규모

| 구분 | '89<br>이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총<br>입국자 | 사망  | 이민 | 국내<br>거주 |
|----|-----------|-----|-----|-----|-----|-----|-----|-----|-----|-----|-----|-----|-----|----------|-----|----|----------|
| 인원 | 607       | 9   | 9   | 8   | 8   | 52  | 41  | 56  | 85  | 71  | 148 | 312 | 218 | 1,625    | 190 | 33 | 1,402    |

출처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내부자료(2001년 5월 3일 현재)



<그림 II-1> 1990년 이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추이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2001:15) (2000년 입국자 정보를 추가했음)

해방이후 지난해(2000년) 12월 월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과거에는 귀순용사)는 총 1,406명이다. 이 중에서 94년 이전까지 입국한 탈북동포의 총수는 641명으로서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94년부터 지금까지 과거 약 7년 동안의 입국자(즉, 탈북동포 등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 이후 입국자)는 765명으로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전에 비해 전체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이 조금씩 상승하다 지난해 2000년 한해동안 312명이 입국하였다. 이는 탈북동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94년에 비해서도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2001년 올해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7-800명까지의 입국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입국 탈북동포의 증가추세에 대한 것은 <표 II-1> 과 <그림 II-1>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향후의 중국등지와 같은 재외국 탈

북동포의 규모와 국내 입국동향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자료들에 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입국 탈북동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민간단체들에서는 금년 2001년에는 대략 500-700명 정도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4-5년간의 탈북귀순자의 증가추세를 2002년(1500명), 2003년(2000명), 2004년(3000명), 2005년(4000명) 규모로 정체됨이 없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2001년 6월말 장길수 가족의 난민지위신청을 위한 UNHCR 중국사무소에서의 농성과 이에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식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동지의 소위 해외탈북자들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남한행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한편 해외 체류중인 탈북동포 규모 및 국내 입국 희망자 규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중국에 장기체류자 8만명과 단기체류자 3만명 정도, 러시아의 장기체류자 5천명,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약 1000여명 정도의 장기체류자가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국내 입국 희망자 규모는 중국 장기체류자 중 5만명 이상, 러시아 장기체류자 중 4천명 이상, 동남아시아국가들 장기체류자 중 5백명 이상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외 탈북동포 규모를 추정할 때 앞으로 이들의 국내입국은 계속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

7) 이러한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고 중국동지에서 탈북동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서의 비공식적 추정에 의한 것임을 밝힘.

### 3. 국내 탈북주민의 정착지원의 내용

#### 1)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지원

탈북동포들이 국내 입국하여 관계기관의 조사단계를 거친 후 보호관리단계로서 통일부의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3개월, 최근 2개월로 축소됨)과 직업훈련(6~8개월)을 받게 된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실생활 현장체험 교육에 중점을 두고 3개월간 약 500여시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지만 정부의 사회적응교육은 효과성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의위주의 현장감 없는 교육, 교육생들의 참여부족과 태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부문의 부족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다양화하는 탈북동포의 배경과 특성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 배경(연령, 북한내의 학력 및 경력, 탈북경로 등)이나 증가하고 있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교육내용(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여성, 청소년 등)에 따라 기존의 성인대상 중심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교육에 여성의 지위 및 성과 결혼 등의 과목들이 선정되어 있으나, 탈북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이들에게 남한사회 내 여성문제의 구체적인 실상과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남한 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동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되기도한다. 중국등 해외에서 은신생활을 하는동안 나름대로 인식한 남한의 사회적 특성, 삶의 방식, 경제구조와 수단, 대인관계등을 고정

화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별로없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교육시 방만하거나 아예 교육조차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기관이 제시하는 커리큘럼보다는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은 지엽적인 목표달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나원내에서는 정책적으로 종교의식을 참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많은 교육생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고 특히 시설내 하나교회(영락교회 파견목사 강철민 담당)가 창립되어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및 목회자와의 만남은 향후 이루어질 교회결연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별 특성과 욕구, 그리고 신앙의 정도, 가족관계, 그리고 거주지 희망사항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향후의 교회를 통한 정착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 사회편입기의 사회적응 지원과 사후관리제도

탈북입국자들은 정부사회적응 시설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전입시에 있어 정부는 우선 13~21평 규모의 모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1인가족 기준 2,9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일시적 정착지원금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동포의 거주지 편입후 사후관리내용은 크게 2년간 담당 경찰관의 신변 보호, 그리고 5년간 거주지 담당보호관의 사후 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부는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전담관제를 운영하여 담당경찰이 신변보호기간(2년)중 신변안전은 물론 행정적·법적 지원 등 생활상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변보호관을 지정된 담당 경찰의 존재는 탈북동포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신변보호의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데 1년 혹은 그 이하로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9년 8월 거주지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광역(16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32개)에 각각 지정되어,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제공,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결연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 거주지 보호담당관제 도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합동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된 정부의 탈북동포 정착지원정책 체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1>와 같다. <표 II-1>에서는 정부활동과 정책이 외에도 민간의 활동을 포함시켰으나 매우 축약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

8)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업무실무편람」 참조.

<표 II-2> 정부의 북한동포의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의 요약

| 보호<br>단계       | 시설보호                                                                                                                                              | 거주지편입                                                                                                                                                                | 거주지보호(5년)                                                                                                                                                                                    | 사후지원                                                                                                                       |
|----------------|---------------------------------------------------------------------------------------------------------------------------------------------------|----------------------------------------------------------------------------------------------------------------------------------------------------------------------|----------------------------------------------------------------------------------------------------------------------------------------------------------------------------------------------|----------------------------------------------------------------------------------------------------------------------------|
| 지원<br>목표       | 우리사회 기본적인<br>이해 및 사회적응<br>능력 제고                                                                                                                   | 초기 생활안정<br>지원                                                                                                                                                        | 자립·자활 지원                                                                                                                                                                                     | 부적응 방지 및<br>재사회화 지원                                                                                                        |
| 주요<br>지원<br>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조사를 통한 보호결정</li> <li>○사회적응교육 (3개월)</li> <li>○심리상담·진로 지도</li> <li>○생활관리·지도</li> <li>*각종 자원봉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금 등 재정적 지원 (1인가족 3,800 만원)</li> <li>○주택알선 (13-25평)</li> <li>○자매결연 지원</li> <li>○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li> <li>○자격·경력인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생계보조금 지원</li> <li>○직업훈련 지원</li> <li>○교육지원 (공납금, 학자금)</li> <li>○취업알선 및 취업보호 (영농정착포함)</li> <li>○생활·의료보호</li> <li>○생업지원</li> <li>* 거주지신변보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동사항 파악</li> <li>○애로사항 해소 지원</li> <li>○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 (상담·창업·결연 등)</li> </ul> |
| 지원<br>주체       | 통일부(하나원)<br>국방부(대성공사)<br>자원봉사단체 등                                                                                                                 | 통일부<br>후원회 및<br>민간단체                                                                                                                                                 | 통일부,<br>거주지보호담당관,<br>노동부, 경찰,<br>지역단체 등                                                                                                                                                      | 거주지보호담당,<br>북한이탈주민후원<br>회<br>민간단체협의회<br>등                                                                                  |

\* 출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현황”, 2000.8

### III. 연구의 이론적, 경험적 배경

#### 1. 탈북청소년의 연령적 구분

청소년의 연령은 시대, 학자, 관련 법규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탈북입국한 청소년들의 연령은 남한의 일반청소년들과는 다르게 규정될 필요가 있어서 더욱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한 법과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13,4세에서 18세정도에 이르는 연령대를 청소년기라고 규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청소년의 연령이 탈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였다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위에서 규정한 13,4세-18세사이의 연령대에서 상한연령인 18세를 좀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육체적 연령이 18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학업을 계속하게 될 경우 자신의 나이보다 2-3세 낮은 연령의 청소년 집단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지원(대학입학 특례)하는 연령이 30세 전까지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연령에 상관없이 각종 일반교육, 기술교육기관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할 때 남한의 청소년기나 초기 청년기의 문화를 사회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8세의 상한연령은 최소한 20세나 21세 혹은 그이상의 연령도 청소년 집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13세에서 21세 사이를 청소년 탈북자의 연령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상한

의 연령은 매우 자의적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III-1> 청소년의 연령구분: 한국과 외국

| 우리나라의 경우           |                                                             | 외국의 경우                            |               |
|--------------------|-------------------------------------------------------------|-----------------------------------|---------------|
| 아동복지법<br>민법<br>소년법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br>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br>20세 미만인 자를 소년 | 이탈리아,<br>노르웨이,<br>스위스,<br>오스트레일리아 | 14세 이상 18세    |
| 근로기준법              |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는<br>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br>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 핀란드                               | 16세 이상 18세 미만 |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br>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                            | 프랑스                               | 13세 이상 18세 미만 |
| 청소년보호법             |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 영국                                | 8세 이상 17세 미만  |

## 2.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

### 1) 북한청소년의 이해

일반적으로 북한청소년들은 남한의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특징, 그리고 이들이 이루고있는 하위문화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적하여 왔다. 그 선행연구내용을 다소 단순화시키더라도, 압축하여 표현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유교적 전통을 강하게 유지해온 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가족관계속에서 성장하고 정치전략적으로 조성된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성열(2000)에 따르면 북한식 가부장적 속성은 부자관계사이에서 효라는 가치가 거의 신앙적 수준에 가깝고, 아버지의 권위아래서 가족구성원간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가족구성원에게 주어진 지위에 맞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에서 유교적 전통인 가부장제의 요소가 유지 그리고 강화되어온 이유를 북한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찾고 있다. 원래 전통적인 가부장적 속성의 중요요소로서 부자관계의 연속성, 가장의 권위강조,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집단성등인데 이것들이 김일성-김정일 권력의 세습, 수령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집단적 배타성으로 인한 주체사상의 고양과 남한과 미국을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한성열, 2000).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은 약화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가족적 문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지되는 이중적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북한식 가족문화와 정치적으로 조장된 가족주의적 집단성속에서 사회화된다. 어릴적부터 탁아소와 유아원에 맡겨져 공산주의적 혁명가로서 양성되기 위해 집단생활에 익숙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봉사과 헌신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며, “가족원들간의 정 대신에 당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게 한다”는 것이다(도종수, 2000). 이 결과 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의식은 집단의식, 폐쇄성, 조직성, 순종적 태도, 온정주의 경향,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종, 집단에 순응, 인정과 의리중시하는 성향을 갖게되고 이는 남한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태도, 개방성,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대중적 문화의식등에 비교된다(한만길, 1997).

종합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전략에 의해

전통가부장제의 습성이 유지되고 심지어 강화되었고 그러므로 노동력확보를 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고양되면서도 가족내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권위에 의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에게는 가족내의 아버지로부터 정치적 지도자(정치적 가장)에 이르기까지 가장의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요구되는 독특한 북한식 가족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의 북한식 가족주의 특징은 탈북자들의 태도에서 대체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 실시된 실증적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우택, 민성길, 1996;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은 전통 유교적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자들은 전반적으로 예절바르며 남편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익숙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인성에 내재화된 집단주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으며, 한편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타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공생공사의 의식이 강한 편이다.

아직 탈북자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의식구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지만 성인탈북자들이 북한사회 특유의 문화적 속성을 내재화하였음을 보이듯이 청소년 역시 이와 비슷한 북한의 가부장제적 가족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2)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의 비교

도종수(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화기관에 기인하여 남북한간의 청소년의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정치의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청소년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하에 권위주의 의식과 폐쇄성, 이중적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의식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한의 경우 시장경제로 인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노동을 해도 그 결과과 당에 귀속되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육체노동을 중시하나 내면적으로는 정신노동을 동경하고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 표 III-2>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의 비교

|         | 남한                                                     | 북한                                                                          |
|---------|--------------------------------------------------------|-----------------------------------------------------------------------------|
| 정치·의식   |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br>정치·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함                        |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 신념<br>(이중적 의식)                                                 |
| 경제·의식   | 자율, 능동적<br>이기적, 개인주의적<br><br>정신노동 선호                   | 수동적, 이중성<br>(이기주의적, 물질주의<br>뇌물, 절도 등 일탈증가)<br>육체노동 중시<br>(정신노동 선호, 도시생활 동경) |
| 사회문화·의식 | 개인주의<br>자기중심적 태도<br>개방성<br>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br>대중적 문화의식 | 집단주의<br>조직성<br>폐쇄성<br>순종적 태도<br>온정주의적 경향                                    |
| 통일      | 민족발전의 계기                                               |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                                                                 |
| 남북한관    | 사회주의의 맹목적 신봉자<br>독재사회, 호전성<br>가난하고 험벗음                 | 제국주의의 앞잡이<br>저지가 많은 사회                                                      |

\* 출처: 도종수 (2000:109)

사회문화의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남한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매사에 임하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고 개방적이며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반면, 북한 청소년의 경우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순종적이고 온정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통일 및 남북한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남한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민족발전의 계기로 보며 북한을 사회주의의 맹목적인 실패자로 보고 매우 독재적이며 가난하고 험악한 국민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통일을 공산주의 혁명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을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거지가 많은 사회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사회화기관간의 차이와 청소년 의식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유아기의 사회화기관 뿐만 아니라 가족개념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가치관 형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 및 통일과 남북한관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 3. 탈북자의 사회적응의 개념

#### 1) 탈북자와 사회적응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정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바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김귀옥, 2000:327)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개념의 적응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원용되고 세부화되어 그 개념이 매우 방대

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정의한 ‘적응’의 개념을 위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먼저, 정유선(1998)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윤여상(1994)은 ‘주변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으로 정의되는 심리학적 개념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 요구 등에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혜정(1995)은 “한 사회의 성원인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윤인진(2000)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적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독고순(1999)은 적응의 개념을 ‘행동의 사회적 적용성(social applicability of behavior)’과 ‘정신적 준거틀의 명료성’으로 구분하는 그로브와 토비온(Grove & Torbiorn, 1985)의 견해를 탈북자 적응의 분석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응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는 자신의 행동에 유용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독고순, 1999: 28).

탈북자의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소래(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이란 “단순히 이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 [탈북자의] 적응과 변화, 수정, 조절,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자신을 남한의 신념체계와 생활 방식, 사회적 관계망, 습관적 형태에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소래, 1999: 15).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약화현상으로서 불안, 우울, 소외감, 정체감혼란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지적되기도 한다(Williams & Berry, 1991).

탈북자의 정신건강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전우택(1997)에 따르면,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은 크게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

으로 구분된다. 정치 사상적 적응은 “북한에서 세뇌 식으로 교육 받아온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의한 획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적응은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이들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적응이란 남한사회로의 귀순에 대한 만족감(“자신이 지금 와 있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잘 와 있다는 의식”), 남한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해결해 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소속감(“자신이 이 남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세부적을 설명하고 있는 윤인진(2000)은 사회적응을 물질적(경제적) 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이 두 영역의 조합으로 네 가지의 상이한 적응유형-통합형, 고립형, (문화적)동화, 주변화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물질적 혹은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의 정식구성원(full member)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형화에 비추어 보건대 탈북자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적응을 보이는 탈북자는 소수이고 대다수가 부분적응 또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 탈북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문의 성취를 그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욕구로 보았으며(윤덕룡·장대규, 1997;통일부, 1998; 김엘리, 1999), 이러한 경제적 적응은 남한사회의 문화적 적응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적응이 성공적이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전우택, 1997; 윤인진, 2000).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개념을 토대로 연구자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의 제반 사회 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의 토대위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심리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만족감은 탈북자들이 느끼는 남한생활에서의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소속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차원은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이분화 될 수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적응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상태는 적응의 장단기적 결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척도화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기영, 2001)이 있기는 했지만 탈북자 연구에서 사회적응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2)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탈북자 일반의 사회적응의 개념을 구체화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 보다 더 세부적인 인구학적 집단으로서의 탈북 청소년에 특화된 사회적응의 개념정의가 희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인 탈북자의 경우, 남한사회적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경제적 부문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될 수 있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학업부문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적응,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경제적 적응의 차원이 매우 주요한 제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적소(niche)의 구실을 한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바로 학업성취를 위주로 하는 학교를 위시한 학업의 장에서 남한의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에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적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

국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적응하고 남한의 청소년들과 무리없이 섞이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자 청소년의 사회적응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차원은 이들이 소속된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의 지속이다. 말하자면, 독신으로 온 청소년 탈북자를 제외하고 많은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적응할 터인데, 이러한 경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가족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3) 탈북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1998년의 박선경의 연구, 2000년의 이기영의 연구, 그리고 같은해 장창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sup>9)</sup>.

탈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조사연구로 보여지는 박선경(1998)의 논문은 탈북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교사와의 관련 적응, 교우와의 관련 적응, 학습활동적응, 자기통제에 관련한 적응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4가지 영역에서 각각 하위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그 측면에서의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에 대한 예의는 의무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교사와는 그리 친밀하지 않은 관계로서, 그리고 교사의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자신의 개방성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교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 자신이

---

9) 탈북청소년에 관한 문헌연구로는 전우택(2000)의 연구가 있다.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이 보이거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는 낮았으며(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 모든 탈북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학급활동측면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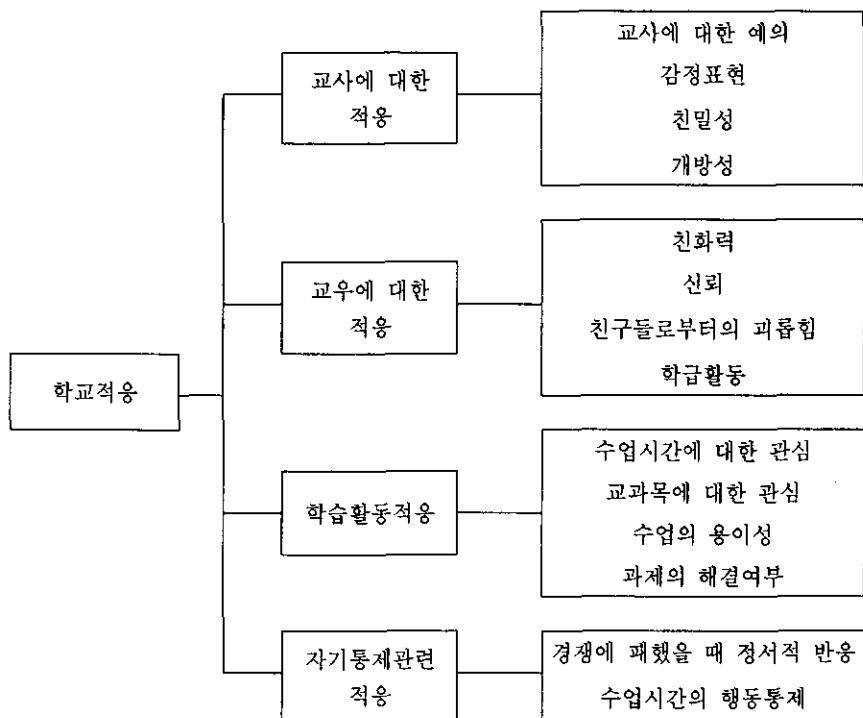
세 번째 하위영역인 학습에 대한 적용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힘들고 재미없어서 수업시간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고된다. 학습과제의 해결여부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자기통제영역에서는 경쟁에 실패했을 때의 정서적인 반응과 수업시간의 행동통제측면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2000)은 사회에 나오기전 정부의 교육시설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탈북 청소년들의 욕구를 밝히려 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탈북자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sup>10)</sup> 대체로 남한사회 청소년문화에 민감하며, 이들의 문화속에 편입되려는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다. 조사당시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서태지 컴백'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특히 유행하는 춤을 잘 추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와 함께 청소년문화에의 적응과 같은 문화적 적응을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다.

---

10) 탈북자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 3개월간 정부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그림 III-1> 박선경의 탈북자 청소년 적응영역 도식화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 입학 후 이러한 놀이문화에 잘 적응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성인탈북자들 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쩌면 남한사회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을 그들의 부모보다 더 심각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다(이기영, 2000).

탈북자 자녀들은 자신의 학업능력 때문에 자기보다 1-3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체감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학급의 아이들을 다 잡아버리겠다”(북한인권시민연합, 2000)는 표현은 학습부진에서 오는 수치심과 분노의 극단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부모들의 지지를 통해서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부모자신들의 적응문제로 별로 여유가 없을 것이며, 자녀들에게 관심을 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학습능력의 갭을 메워주기에는 부모들 역시 역부족이다.

어른들이 봐도 어려워하는 교재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외래어나 한자등은 자녀들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마찬가지이다. 또한 부모들은 남한의 교육문화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학교의 담임교사의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방임되기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탈북자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문제는 자신들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증가시키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이기영, 2000).

2000년 12월에 완성된 또 하나의 탈북자 청소년 논문은 탈북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석사논문을 준비한 장창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도 약 6명의 13세이상 탈북청소년을 인터뷰하여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살펴려 했다. 먼저 심리적 적응부분에서는 외로움, 불안과 걱정, 소외감 및 소속감, 자신감 및 자부심, 자아존중감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학습능력, 친구, 교사와의 관계), 일반적 대인관계, 가족과의 문제(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내 가족과의 상호작용), 언어문제, 경제적인 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이러한 대부분의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4) 외국의 청소년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적응

탈북자 청소년들의 경험과 비교되는 차원에서 난민(refugees)과 이주

민(international migrants)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문제를 다룬 외국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의 경우에 눈여겨 보아야 할 이슈나 변수들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개인의 사회적응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Berry, Km, Minde, and Mok, 1987; Bernier, 1992; Florsheim, 1997; Hirayama, Hirayama, and Cetingok, 1993; Hein, 1994; Strober, 1994) 청소년집단에 한정하여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Nguyen, 1982; Lee, 1988; Almqvist and Brandell-Forsberg, 1995; Delores, 1997; Eisikovits, 2000)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주(migration 혹은 relocating)로 인하여 새로운 정착지에서 경험하는 급격한 전환(rapid transition),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학자와 실무자들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난민이 주자(refugee immigrants) 청소년은 정착지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은 적응의 문제와 정신건강에서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예로 난민가족의 자녀들 또한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육체적 심리적 문제를 일반아동들 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n-Porath, 1987; Charron and Ness, 1981). 그리고 난민신분으로 최종 정착지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들, 그리고 심각한 후기외상적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mptoms)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Moodley, 1990), 호주(Reid and Strong, 1897), 그리고 캐나다(Barkin, Konstantareas and de Bosset, 1989)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연구 결과로 보고 되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동남아 난민들을 가족적 측면에서 연구해온 해인스와 그의 동료들은(Haines, Rutherford, and Thomas, 1981:317) 적응과정에서의 난민 가족은 세대간의 분리와 부부사이의 분리(schism)를 지적하고 있다. 즉, 세대간의 분리란 부모와 함께 이주한 청소년 자녀들이 정착국(특

히, 청장년을 더욱 가치있게 여기는 사회)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사이의 분리란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위치에 어울리는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동남아 난민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Lee, 1988)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의 경우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착국에서 자녀들이 독립하기까지 부모의 영향아래 놓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초기 적응기에서의 그 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전환과 세대간의 갈등을 동시에 겪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Lee, 1988)는 청소년을 둔 난민가족의 스트레스의 원천을 부모-자녀사이의 세대간의 갈등과,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trauma)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의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부모와 자녀사이의 가치와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가치관차이는 전통적 동남아의 유교적 가치관과(부모에 의해 권고되는) 서양의 개인적이고 독립적 삶을 강조하는 가치관(주로 자녀들이 먼저 내면화하는)과의 갈등을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의 세대간 갈등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이성친구의 사귀이나 결혼상대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시 표면화되며 또한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적응에 불리함으로서,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역할전도로 인한 세대간 갈등도 야기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성적으로(sexual)나 직업적으로 동일시의 대상이나 인생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동정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세대간 역할의 전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감정적 다툼이나 적대감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가족내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Lee, 1988: 174-175).

이주(relocating)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행태를 연구한 골드버그(Goldberg, 1980)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주라는 경험은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자긍심(self-esteem)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 가족구성원중에서 자녀가 대개 정착지의 주류적 문화에 빠르고 많이 노출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부모를 능가하게 될 때 가족관계는 긴장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이고 또한 존경을 받기원하는 부모의 권위에 대단히 치명적인 역할전도현상을 초래한다. 동남아 난민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온 Nguyen(1982)도 이러한 역할전도와 가족내의 새로운 권력균형의 형성은 가족내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편의 학대, 부모의 좌절, 그리고 과음과 같은 행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p.32).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 청소년들이 보이는 부적응, 정체감의 혼란,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해체의 모습들은 앞으로 탈북자 청소년의 연구분야에 중요한 변수들과 분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형성에 참고할 중요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 5) 국내거주 탈북청소년의 규모

### (1) 在外國 탈북 청소년의 규모와 생활상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까지 약 5개월간 민간단체인 좋은 벗들에서 중국동북부지역의 마을들을 현지조사결과 탈북자의 대략적인 숫자는 최대 195,479명, 최소 143,57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가운데 10대 이하의 연령을 가진 탈북자는 전체 2.8%의 비율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로서 산정해 보건대 조사시점에서 소위 꽃제비라 불리우는 탈북고아를 포함한 청소년 탈북자들의 인구는 약 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민간의 비공식적 통계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가 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로 삼을 유일한 자료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아로서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역, 공항, 시장등지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자는 곳은 주로 룡상청이라고 하는 비디오방으로, 하루 3~5위안의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역전과 병원이나 아파트 계단, 시장 매대등지에서 잠을 자는등 열악한 생활을 한다. 탈북이 급증하던 97년 98년경 중국으로 도강해 온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10세 이상의 남자 어린이들로서 그 중에서도 15세 이상인 청소년들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모두 10-12세 정도의 키와 체격을 하고 있다. 탈북하여 중국등지를 체류하는 청소년탈북자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된다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걸하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시간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가는 또래 아이들을 몹시 부러워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자신들을 돌려 보내지 않을 것파 함께 자신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좋은벗들, 1999a).

<표 III-3> 중국내 조사지역의 탈북자 연령별 비율

| 연령대    | 유민수(명) | 총백분율(%) | 유효백분율(%) |
|--------|--------|---------|----------|
| 10대 이하 | 770    | 2.7%    | 2.8%     |
| 20대    | 8,273  | 29.1%   | 29.6%    |
| 30대    | 8,851  | 31.1%   | 31.7%    |
| 40대    | 6,756  | 23.7%   | 24.2%    |
| 50대    | 2,531  | 8.9%    | 9.1%     |
| 60대 이상 | 735    | 2.6%    | 2.6%     |
| 무응답    | 556    | 2.0%    | -        |
| 합 계    | 28,472 | 100.0%  | 100.0%   |

\* 출처: 좋은벗들(1999b).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 (2) 국내 탈북 청소년의 규모

국내 탈북자 숫자의 통계에서 연령별 구분에 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어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2001년 5월 3일 현재 1625명으로 집계된 탈북자 총규모에서 청소년 탈북자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쉽지않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정부의 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의 기수별통계를 활용해보면, 1999년 7월 하나원 개원부터 2001년 9월현재 16기수의 교육생중 20세미만의 사람들은 168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어렵잡아 약 200여명정도의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원개원시 (제 1기)부터 2000년 말까지의 (제 10기) 하나원 교육을 거쳐간 탈북자중 10대 청소년이 49명, 10대미만의 아동이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1기(2000년 말)부터 2001년 9월 현재(제 16기)까지의 탈북교육생중 13세 이상 20세 미만이 50명이고, 12세미만의 아동이 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록 이것이 1999년 중순이후의 집계이기 때문에 94년이후부터 99년중순까지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수를 합해야 할것이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 연소자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큰 오산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 IV. 탈북청소년대상 부적응 현상에 대한 실증적 조사내용

### 1. 실증조사의 분석틀과 분석방법

앞서 탈북자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와 외국의 이주민·난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관련 선행연구시 제시된 주요 주제(themes), 개념, 변수들을 참조하고는 있지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내용이 제시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으로 자유로와 지기를 노력했다. 즉, 선행연구와 같이 이 연구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주요한 남한사회적응의 영역을 학교, 학원등의 학습의 장(場)에서의 적응행태, 남한의 청소년과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적응행태, 가족내에서의 관계행태, 남한사회제도일반에 대한 적응행태, 그리고 자신의 심리정서적 상황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영역속에서의 중요한 주제(themes)와 세부적인 개념혹은 변수들, 그리고 그것들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분석을 하려한다.

이 연구가 지향하는 질적조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사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세계를 여과없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ubin & Babbie, 1997; Padgett, 1998). 그러므로 심층면접의 기록과 같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에 의지해서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Padgett, 1998).

이 연구의 목적인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경험의 유형화는 질적분석방법의 전형인 ‘개방적 코딩(open coding)-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중심주제형성(themes)’의 과정(Glaser & Strauss, 1967)에 매우 적합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심주제의 형성이란 수집된 다양한 “질적자료(qualitative data)를 가로지르는 어떤 공통적인 것으로서 인간경험의 유형을 포착해내는 것”(유태균역, 2001)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탈북자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혹은 부적응)의 경험들을 그려내는 것은 질적자료분석기법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의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고 대입할 적절한 이론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화된 양적분석틀을 위한 변수설정과 가설형성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수적 한계와 접촉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양적분석보다는 오히려 인터뷰내용 및 기록, 선행 질적연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토대이론(grounded theory)형성을 위한 임시적 결론을 얻는 것(Rubin & Babbie, 1998)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 □ 분석의 순서

- ① 심층면접내용 기록과 자원봉사자 전화면접내용 기록서 만들
- ② 면접기록(혹은 녹취물)에 대한 개방적 코딩시작: 기록서와 녹취물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잠재적인 주제가 될만한 것을 기록 및 녹취물 여백에 써놓음으로서 코드화함.
- ③ 이러한 개방적 코딩작업시 지속적 비교분석을 함: 잠재적 중심주제가 코딩과정에 나타나면(귀납적 탐구) 이전에 코딩되었던 기록과 녹취의 부분을 이 중심주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금 재검토 한다(연역적 탐구). 이러한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을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되풀이한다.
- ④ 중심주제의 형성: 코딩과정에서 나타난 코드 또는 범주들간의 관계를 탐색. 이 중심주제 들은 탈북청소년들의 부적응 경험을 유형화하는 기본단위가 될 것이고, 이 주제를 둘러싼 세부적인 코드 (작은범주)들은 그 경험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 ⑤ 중심주제 해석후 문장화함: 전단계까지 수집 분석된 중심주제 (큰범주)들을 축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을 유형화하기 위한 최종서술을 시도함.
- 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 제고하기 위한 작업시행: 이 연구에서

는 응답자에 의한 전반적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 자료출처의 다양화, 동료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으로부터의 검토등을 통하여 연구자의 질적 분석 결과를 신빙성있게 함.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사회 적응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출처로서 당사자에 대한 질적면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와의 전화면접자료, 기존의 자원봉사자(청소년대상의 학습지도자원봉사) 가정방문기록서, 그리고 기존의 질적면접 문헌(박선경, 1998; 장혜경, 2000; 이기영, 2000; 장창호, 2000)등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대조, 검토해보았다.

⑦ 검토후 유형화의 완성을 위해 조사 및 분석결과를 최종화함.

## 2. 분석을 위한 질적 자료의 소개

### 1) 탈북청소년 면접기록서 (총 10명 대상)

탈북청소년 A: 여 18 검정고시학원, 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B: 여 18 검정고시학원, 중국어 학원,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C: 남 19세 고등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D: 남 16세 중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E: 남 16세, 검정고시학원, 2001년 2월 초등학교 졸업,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F: 남 20세, 북한에서 고 2마침. 현재 진학준비, 독신거주

탈북청소년 G: 남 15세, 초등학교 6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H: 여 15세, 중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I & J(2명 동시 면접): 두 명 모두 13세, 초등학교 3학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 2)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 전화 면접기록서 (총 5명<sup>11)</sup>)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들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탈북청소년 K: 13세 여, 중학교 재학중, 부모와 함께 거주 (형제 자매 없음)

탈북청소년 L: 13세 여, 초등학교 재학중, 모와 함께 거주 (남동생 있음, 부와 입국했으나 별거함)

탈북청소년 M: 15세 여, 중학교 재학중, 부와 함께 거주(형제 자매 없음)

탈북청소년 N: 21세 남, 독학중, 남한의 고모댁에서 거주 (단독입국)

불특정 탈북청소년(분석을 위해 “불특정”이라고 칭함): 다수의 탈북청소년 자원봉사와 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장에 의한 전반적인 인상과 견해

전화면접에서 사용한 반지시적(semi-instructed) 질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문탈북자 청소년 남한사회 부적응 행태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 질문서

1. 자원봉사자의 나이는?
2. 자원봉사자의 성별?
3. 당신은 대학생/대학원생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11) 연구계획서상 10명의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중간평가보고서에 기록된 5명의 전화인터뷰기록서만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의 가정방문기록서 (탈북자 가정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주별방문 기록서 2000년-2001년 2년간)를 참조하여 질적 자료 분석의 결과를 조정하였다.

4.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자원봉사대상이 여러명이었다면 가장 심각한 적응어려움을 보였던 탈북청소년의 경우)

5. 탈북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족관계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6. 탈북청소년(혹은 청소년의 가족)이 제 3국 체류시 특별한 경험 (주로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탈북청소년은 현재 (혹은 자원봉사할 때) 어디에 다니고 있었나요? 학교? 학원(검정고시 or 일반학원 or 기술학원)? 기술훈련원등

8. 자원봉사자가 만났던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의 적응 (친구관계, 선생님과 관계, 학습능력, 숙제해결 및 완료)

-사회생활의 적응(남한청소년문화에 대한 반응, 적응속도, 일반성인문화에 대한 태도, 법규나 규칙에 대한 적응,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사회제도에 대한 적응, 소비행태의 부적절함등)

-가족간의 관계(부모에 반항, 부모와 갈등, 부모의 방임, 형제자매끼리의 갈등, 다른가족원과 친척간의 관계, 남한에 함께 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등)

-심리적 부분 (우울, 불안, 긴장, 정체감 상실, 정체감 혼동, 대인접촉에 자신이 없음, 자신감 상실, 열등감, 특별한 부정적 trauma, 대인기피증, 정신장애)

-비행이나 범죄경험 (심한 흡연, 심한음주, 폭행, 기타 비행등의 경험)

이상과 같이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경험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행태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자원봉사자 탈북가정 방문 기록서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하나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충지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가정방문 기록서를 제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록서중에서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기록서들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질적자료분석을 보다 풍부히하기 위해 비교자료로 참고하였다.

### 4) 선행연구문헌들의 질적자료

이 연구를 위해 동원한 각종 실증조사 자료들 이외에 탈북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질적자료(qualitative data)를 또한 검토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1998년의 박선경의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석사논문

2000년의 한국여성개발원의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2000년의 이기영의 '하나원의 청소년 탈북자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2000년의 장창호의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석사논문

이러한 선행연구논문들은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직접분석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주로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실증자료로 파악된 탈북 청소년

년의 부적응 관련 유형을 최종화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조자료로 활용되었다.

### 3. 수집된 자료(transcripts)에 대한 코딩작업

아래에서 제시한 기록서는 탈북청소년의 인터뷰내용을 위시한 질적자료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면담내용 중 하나의 코드(범주)가 될 수 있다고 생

| 코드(범주) | 면담내용                                                                                                                                                                                                                                                                           | 연구자의 notes |
|--------|--------------------------------------------------------------------------------------------------------------------------------------------------------------------------------------------------------------------------------------------------------------------------------|------------|
|        | R : 일원동에는 친구...없어?<br>A : 북한애들 있는데...걔네랑은 대면 안해요.<br>R : 왜?<br>A : 모르드라구요....<br>R : 어떤 면을 모르는대???<br>A : 하나원에도 가지 않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br>23년 된 애들이예요.<br>R : 2~3년이면 너보다 남한에 있었던 시간도 훨씬 많고, 도움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걔네 지금 뭐 하는데...학교 다닐꺼 아니야..<br>A : 학교 다녀요.<br>R : 학교 다니면...도움이 되진 않을까? |            |

| 코드(범주)                 | 면담내용                                                                                                                                                                                                                                                                                                                                                                                                                                                                                                                                                                                                                                                                                                                                                                                                                               | 연구자의 notes                                                                                                                                                                                                                                                     |
|------------------------|------------------------------------------------------------------------------------------------------------------------------------------------------------------------------------------------------------------------------------------------------------------------------------------------------------------------------------------------------------------------------------------------------------------------------------------------------------------------------------------------------------------------------------------------------------------------------------------------------------------------------------------------------------------------------------------------------------------------------------------------------------------------------------------------------------------------------------|----------------------------------------------------------------------------------------------------------------------------------------------------------------------------------------------------------------------------------------------------------------|
| 같은 탈북<br>청소년사<br>이의 관계 | <p>A : <u>개네들한테 끌리지가 않아요...몰라요...개네들하고 너무 대상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오히려 개네들이 한국 애들보다 더 <u>개수 없어요. 잘난 척하고...</u> 자기들이 선배라고...그...개네들이 엄마아빠가 우리 집에 올라와서 말하는거 보면...자기들밖에 없어요...완전히...하늘땅에...제가 볼때는요...하나원 거쳐서 안나온 사람들이 그런거 같아요. 오히려 하나원 거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살자구...노력하고, 좀 배운게 있으니깐....아직도 일자리 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잖아요.</u></p> <p>R : 오신지 한 2~3년 되셨는데도...</p> <p>A : 네....</p> <p>R : 그런데....애들은 다들 수도 있잖아...<u>오히려 남한 애들보다 더 친해지고 싶지 않단 얘기야?</u></p> <p>A : 네.</p> <p>R : 음...의외네.</p> <p>A : 별루예요...진짜 별루예요...개네들...큰애는 20살이구 둘째17, 셋째12이고...</p> <p>R : 너희 집 근처에 그런 집이 한집만 있어?</p> <p>A : 같은 아파트 살구요...그리고 옆에 남자 형제들이 산다고 그러는데...<u>그 동생이 일저질러가지고 감옥에...있구...형 혼자서 집 거두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u></p> <p>R : 어머니 입장에서 보시면...별로 안 친해졌으면 하시겠다.</p> <p>A : 지내는 와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친해라 그러는데...그런애들 싫어요.</p> <p>R : 그러면...아래 윗층 사람들하고 왔다갔다 안하겠다.</p> <p>A : 네.</p> | <p>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과 왕래가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케이스에서 매우 부정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p> <p>부모들의 (성인들의) 집단적 대립이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p> <p>같은 탈북자 청소년들의 관계는 남한청소년들과의 교우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궁금함.</p> <p>그러므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경험에서 하나의 중심주제로 또오를수 있다고 보여짐.</p> |
| 청소년탈북자의 비행 사례          | <p>R : 어머니 입장에서 보시면...별로 안 친해졌으면 하시겠다.</p> <p>A : 지내는 와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친해라 그러는데...그런애들 싫어요.</p> <p>R : 그러면...아래 윗층 사람들하고 왔다갔다 안하겠다.</p> <p>A : 네.</p>                                                                                                                                                                                                                                                                                                                                                                                                                                                                                                                                                                                                                                                                                 |                                                                                                                                                                                                                                                                |
| TV 시청등 혼자소일하는 시간이 많음   | <p>R : <u>확원 끝나고, 동네에는 친구들 없는거지...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깐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싫지 않아?</u></p> <p>A : 뭐가요?</p>                                                                                                                                                                                                                                                                                                                                                                                                                                                                                                                                                                                                                                                                                                                           |                                                                                                                                                                                                                                                                |

| 코드(범주) | 면담내용                                                                                                   | 연구자의 notes |
|--------|--------------------------------------------------------------------------------------------------------|------------|
|        | R :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하고 놀면 좋잖아..아직 그럴 생각 없어? 음....<br>(내담자가 의자를 돌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을 던짐) |            |

W: 연구자 A: 탈북자 청소년 A을 의미함.

각되는 것을 왼쪽편에 간략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여기서 코딩이란 문장속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단위를 찾아내는 것(유태균역, 2001:150)이며 계속해서 발굴될 코드들과 연결을 맺어 공통적인 큰 범주로 묶이게 하거나 혹은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인과관계등)로 설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들의 연결작업으로 하나의 큰 주제(theme)가 나타나고, 이러한 주제들을 축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경험 및 행태의 잠정적인 유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른쪽편에 기재되는 연구자의 조사노트는 이러한 잠정적인 유형화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담내용중에 다른 탈북청소년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 “같은 탈북청소년사이의 관계”란 하나의 용어로 코드화하고 해당면담자의 대화중 이와 관계된 부분이 있는지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면담자의 대화중에도 이와 관계된 부분을 찾아 공통되거나 차이점을 찾기도 하고, ‘시기별 탈북자 지원 정부정책의 변화’ (왜냐하면 이전 탈북자들은 하나원이라는 적응교육시설을 거치지 않아 하나원을 거친 사람들과 이질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 부모들의 태도’,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란 꼬리표를 하루라도 빨리 떼기 위해 같은 탈북자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이전 선경험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간과한다는 점등

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다른 코드(범주)들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코드 (혹은 양적조사에서는 조작화된 양적 변수가 되겠지만)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지식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종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유형으로 발전되어서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행태에서 선 입국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방지에 관한 지식과 혹은 그들이 이미 획득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완성되지 않는 연구의 결론이며 예시를 위해서 제시된 것이나 이러한 주제가 중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 여러 면담기록등에서 지지된다면 선행연구자들이 간과한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면담내용이 매우 다양한 생활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면담자료의 분석시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시행하려 한다. 그 영역은 사회적응부분 (친구사귀), 사회적응부분(가족관계), 문화제도적인 면 (의복, 소비생활등 남한사회문화에의 적응), 학업이 이루어지는 장(학교, 학원등), 심리적인 면(정체감, 불안감, 열등감, 대인기피등 심리정서적 적응)등이 된다.

#### 4. 탈북청소년 사회적응의 영역별 코드내용

이 연구에서 수집한 3가지 질적자료(탈북청소년 면담기록서, 자원봉사자 전화면담과 기록서, 자원봉사자 가정방문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주요 적응경험의 영역별로 제시하면 각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표 IV-1>을 참조하시오.

<표 IV-1> 질적자료에서 발췌된 영역별 범주(codes)

|                         |                      |                                                                                                                                                                                                                                                                |
|-------------------------|----------------------|----------------------------------------------------------------------------------------------------------------------------------------------------------------------------------------------------------------------------------------------------------------|
| 학업을 위한 장(장)에서의 적응경험     | 1. 학업 성취 영역          | 쉬운과목: 수학, 사회, 도덕, 국어, 음악<br>힘든과목: 역사, 사회, 영어, 도덕, 물상<br>특수과목(실업계학교의 경우): PC관련 기술/ 의도적 회피와 게으름/부모들의 비 적극적인 지도/ 구체적 전략적 학습법 없음/학업성취도와 사회적응(친구사귀등)과의 관계/공부에 대한 스트레스/학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계획/몰짜쪽에 가까운 등수/ 남한학생의 60%따라감/검정고시에 떨어질 것을 걱정함/학교가기 싫어함/스트레스로 몸이 부음/부모의 지도가 소홀함 |
|                         | 2. 교사와의 관계           | 탈북자라는 사실에 대한 공표하지 않음/신뢰형성/ 관심과 배려/의식적이고 지나친 지원은 역효과-교우들의 시기/교사의 지지는 적응에 매우 긍정적/좋은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부족/ 평범한 존재로 대해주기를 희망                                                                                                                                           |
|                         | 3. 진학결정 과정에서 의 문제    | 인문계와 실업계선택의 부정확성/ 정보의 부족/ 대학특례 입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 대학진학 희망/형사에 대한 원망/ 필요한 학업수준의 가늠을 못함/ 학교와 검정고시학원 선택의 혼란/아르바이트와 취업의 구분을 정확히 못함                                                                                                                                     |
|                         | 4.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 학교보다 거친환경/ 인간관계의 다양화/ 오락과 유흥문화의 경험가능성/부작용에 노출가능성/ 특기를 살리는 학원 수강의 긍정성/ 자격증의 취득/                                                                                                                                                                                 |
| 사회적 관계 형성 (친구사귀)에 대한 경험 | 1. 탈북자라는 사실과 친구관계 인식 | 또래의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무시/경시하는 태도/“왕따”될까봐 쉽게 탈북자란 사실을 숨김 /친구사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숨김/채팅으로 친교의 대리적 만족추구/ 지역사회에서의 친구관계형성 어려움/언어에서의 차이가 출신을 구별짓는데 기여/조롱과 낙인/당당히 밝힘/ 친구들의 개의치 않음/ 생활보호대상자/북한출신을 신기해함/빨갱이라고 놀림/우리는 한민족이야                                                           |

|                                                     |                                                                |                                                                                                                                                                                                                        |
|-----------------------------------------------------|----------------------------------------------------------------|------------------------------------------------------------------------------------------------------------------------------------------------------------------------------------------------------------------------|
| <p>사회적<br/>관계<br/>형성<br/>(친구사귀)<br/>에 대한<br/>경험</p> | <p>2.<br/>연하의<br/>청소년과<br/>동급생이<br/>되는 상황</p>                  | <p>원만한 관계를 형성/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리고 시비잡/<br/>주먹다툼/ 늙은 3학년새끼/자기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나<br/>이 많아 재수없어/ 세 살차이 때문에 짜증나요/왕따해도 6<br/>학년으로 보내달라/ 어려도 같이 놀아야죠/ 지네들끼리 쑥<br/>덕숙덕/ 선생님은 가만있어요/ 자기비하심/ 힘이라도 세어<br/>서 짱이 되어야지/ 여자애고 뭐고 때려 주겠다</p> |
|                                                     | <p>3.<br/>용돈의<br/>액수와<br/>친구사귀<br/>의 용이성</p>                   | <p>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용돈이 도움됨</p>                                                                                                                                                                                         |
|                                                     | <p>4.<br/>친구로<br/>사귀 수<br/>있는<br/>남한청소<br/>년에 대한<br/>인식</p>    | <p>남나리 같은 애들이 많음/의리가 없음/ 남자답지못함/싸가<br/>지가 없음/ 입만살았음/이기주의적/밥맛이다/부정적인식/<br/>불리한 상황에서 사람을 이용함/ 경쟁적이다/ 끝없이 올라<br/>가려고만 한다/ 버릇이 없다/ 여자가 남자영당을 친다/<br/>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분방하다</p>                                                   |
|                                                     | <p>5.<br/>같은<br/>탈북친구<br/>와의 관계</p>                            | <p>하나원동기와 친함/자원봉사자와 동질감/일반 탈북자친구<br/>와는 긴밀하지 않음/ 같은 탈북청소년끼리의 소원함/ 하나<br/>원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의 갈등</p>                                                                                                                        |
|                                                     | <p>6. 청소년<br/>하위(놀이)<br/>문화와<br/>적응경험</p>                      | <p>만화오락가요등에 관심적음/부적응/놀이문화에 못끼는 것<br/>이 아니라 안끼는 것/왕따당함/ 자존심상함/ 공부부터 하<br/>고 놀이는 나중에/친구의 관심을 끌기위해, 소외되지 않기<br/>위해 가식적인 호감심과 놀이적응을 표현함/채팅과 TV시<br/>청을 주로함.</p>                                                            |
|                                                     | <p>7. 탈북자<br/>지원<br/>프로그램의<br/>낙인과와<br/>청소년<br/>탈북자<br/>적응</p> | <p>생활보호적응의 부정적 낙인/무료급식의 회피</p>                                                                                                                                                                                         |

|                                     |                                |                                                                                                                                                                                                                                                    |
|-------------------------------------|--------------------------------|----------------------------------------------------------------------------------------------------------------------------------------------------------------------------------------------------------------------------------------------------|
| 사회적<br>관계형성<br>(친구관계)<br>에서의<br>경험  | 8.<br>청소년의<br>내면적<br>특성        | 함경도 출신/ 관계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물을 중요시 않<br>은성향/ 사회성 약함/ 너와 나만 해결되면 된다/ 개방성이<br>없고 선별적 인간관계형성/ 중국체류시 경험이 개방하지<br>못하는 성향강화시킴                                                                                                                                 |
| 사회적<br>관계형성<br>(가족관계)<br>에 대한<br>경험 | 부모자녀<br>관계                     | 부모와 불화없음/자신의 이미지관리위해 부정적인 것을 언<br>급하지 않음/자신의 시시콜콜이야기 하는 것 귀찮음/ 부모<br>님께서 걱정할까봐/맹목적순종/ 부모와 의복에 대한 견해<br>다름/대학진학의 강렬한 희망(부모)-이에대한 스트레스와<br>부담/ 점정고시보다는 일반고교진학희망(부모)-점정고시선<br>호(청소년)/부모의 갈등과 결손이 스트레스가중/ 사춘기대<br>처/ 가부장적 권위와 남존여비가치 강함/ 아버지의 자녀구<br>타 |
| 심리정서적<br>측면                         |                                | 신체적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헤어진 가족원에<br>대한 그리움과 애착/성공적 삶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요구<br>로 인한 부담감/성취욕구와 새로운 삶(남한친구와의 사귀)<br>에 대한 흥미가 갈등/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분노/ 정서적<br>불안정/ 외로움/ 열등의식과 자기비하/ 북한으로 돌아가고<br>싶음                                                                     |
| 기타                                  | 1.외모 및<br>외형적<br>측면에서의<br>적용행태 | 외모의 큰 변화없음/남한 청소년의 모습에 더 가깝다/요즘<br>유행하는 연예인의 머리 스타일/ 날라리같음                                                                                                                                                                                         |
|                                     | 2.종교의<br>역할                    |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br>있지는 않다/ 청년부에 매우 친한 누나가 있다/성실한 교<br>회출석                                                                                                                                                                           |
|                                     | 3. 남한<br>성문화에<br>대한 인식         | 부정적/ 청소년들의 성담론에 끼지않으려 함/ 북한에서의<br>성교육 부재                                                                                                                                                                                                           |
|                                     | 4. 탈북<br>청소년의<br>비행            | 점정고시학원생의 교통사고 저지름/ 공부안하고 땡땡이 침                                                                                                                                                                                                                     |

위 <표 IV-1>에서 제시한 코드들은 탈북청소년 면접기록과 탈북자 대상 자원봉사자 전화면접기록을 기존의 자원봉사자 보고서내용에서 발췌되었으며 이러한 기본적 코드들을 토대로 주제(themes)의 선정, 그리고 이 주제들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 부적응의 행태를 유형화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 기록물에 대한 코딩 및 연구자 note는 글 뒤의 Appendix I, II 를 참조하기 바람.)

## V. 부적응 유형설명을 위한 주제들(themes)

질적조사의 결과 아래에 제시된 몇가지 주제들이 선정되었는바 이러한 주제들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들을 유형화하면서 묘사하기로 하겠다.

### 1. 학업부문에서의 부진과 사회부적응의 관계

탈북 청소년의 학업에서의 상황은 부진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던지 자신과 경쟁이 되는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이다. 연령별로 비교해보자면 저연령 탈북 청소년들 보다는 (주로 초등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보다는) 고연령 탈북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외 교육제도, 혹은 독학등)의 경우가 더욱 힘들고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선생님들로부터 ‘너 바보 아니냐?’ 혹은 자원봉사대학생들이 ‘바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다.

학과목별로 구분해 볼 때 수학은 많은 경우에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 남한 학생들에 비해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러한 연유로 이 과목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 역사, 사회, 도덕등의 과목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역사, 사회등은 남북한 교육체제와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도덕역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하는 윤리기준이 차이기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보인다. 특히 도덕과목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 적응해가는데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일반학습이외에 특정 기술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PC관련 기술과 같은 정보화관련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분야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부진은 대개 심리적, 육체적 측면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많은 경우가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로 보인다. 특히 어떤 어린 탈북 여학생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란 심적부담으로 육체적인 비만까지 생기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에 있을 때의 학습능력에 있어서의 자산의 모습과 남한에 와서의 자신의 모습이 달라짐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학습의 부진은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교우와의 관계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단서들이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학습의 부진이 교우와의 관계를 협소하게 만들거나 고립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러한 학업부문의 낮은 성취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간의 친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부문의 격차와 심적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하면 된다는 다소 막연한 기대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업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해당 탈북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인 지 못한 태도나 약한 의지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교사와 부모들의 비 적극적인 지도일수도 있다. 다른 가능한 이유로서는 현재 대학입학특례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된다(특히 대입을 생각하는 고연령 청소년의 경우에). 아무튼 현재로서는 학업격차의 보완책이 마땅

히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부모들이 남한학부모들처럼 초등생자녀를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는 만큼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녀의 구체적으로 지도하기에 부족하고 저연령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에도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연령 청소년일수록 학교제도에 들어가기에 힘들고 일반적으로 검정고시나 독학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교회의 야학같은 곳이 학교, 학원, 검정고시학원, 자원봉사학습지도 외의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임을 알게 한다.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진도가 매우 빠르다는 언급으로 판단하건대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탈북자 학생의 능력과 적절히 조화되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2. 교사(학원강사포함)와의 관계

전체적인 묘사를 하려면 교사와 탈북 청소년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담임하는 반에 탈북청소년이 있다는 사실로 의도적인 배려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본인이나 가족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고 또 이를 비밀로 지켜주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이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사와 자신사이의 하나의 신뢰적관계의 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지지적 태도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의 장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해가며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교사의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나치거나 무부별한 지원은 탈북청소년의 동료들로 하여금 시기, 거부를 불러와 오히려 적응 과정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기보다는 평범한 존재이고 싶어한다’는 한 여학생의 표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개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인지 판단을 잘 못하고 있기도 했다. ‘무조건 좋다는 선생이 가장 좋다’는 한 탈북청소년의 이야기는 남한사회의 기준으로 올바른 선생님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 3. 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비 구체성

탈북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 사항은 학업에 대한 무계획성과 단기적으로 진학과 진로설정에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혹은 좋은 직장을 잡거나 사업을 할거라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대학가서 학업을 영위할 수준이 되는 것인지, 또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서둘러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교육프로그램이나 민간자원봉사등에 의해서도 이러한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떤 한 남학생의 경우 실업계학교를 진학하고 나서야 실업계학교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위한 학교인지 알게되어 인문계로 옮기려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안내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진학과정에서의 선택의 실패는 청소년의

앞으로의 남한사회적응과 미래생활상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대학입학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약간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진학의 막연한 기대는 특례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 후 대학학업에서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진로선택의 고민은 고연령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것 같다. 초등학생들은 나이차이 좀 나도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연령차이에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더욱 심할 것이고 또한 학력의 격차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체감의 혼란도 겪지 않고 집중적인 단기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기대하여 검정고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진로설정 지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고연령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취업과 진학에 대한 뚜렷한 선택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 4. 비정규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및 일반학원)에서의 인간관계형성

학교이외의 장(場)에서의 적응은 학교와는 다른 환경적 문제를 제기한다. 탈북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재입학에 따르는 부작용(대표적인 예로, 저연령 청소년과 같은 학년이 되는 것으로 인한)들을 피하고 학력인정을 보장하는 검정고시학원을 찾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외의 이러한 비정규교육기관은 성격상 탈북청소년들을 비교적 거친환경에 부딪

히게 함으로서 학교와는 또다른 적응의 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는 달리 구성원들은 연령, 성별, 삶의 배경등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학업의 이수과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배경등을 초월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위험성도 엿보인다. 사례들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학교와 비교하여 보다 비보호적이고 비관용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탈북청소년의 정체감을 혼란케하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들수 있다.

어떤 사례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로 공부보다는 노는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즉,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검정고시학원은 오락과 유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장이 되고 있어, 탈북청소년이 검정고시학원을 학업성취의 수단으로 택할 경우 적지않은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5. 친구와의 관계형성에서의 부적응

### 1)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교우(친구)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중의 하나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탈북의 사실을 알고서 말투가 이상하다거나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거나 것으로 놀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며 탈북청소년 D의 경우,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학급뿐 아니라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모범이 되려고 하는 것, 상소리나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경우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에 의해서 탈북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비밀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E의 경우는 자신이 탈북자란 사실에 개의치 않고 당당히 밝혔으며, 그 후로도 이러한 탈북출신이란 사실이 관계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 사실 때문에 소외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경우이다. 다만 신기해 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대상자란 불명예 딱지를 달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식을 공짜로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 친구들이 알고 무시할까바 매우 염려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닌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차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주한 경우에 지원하는 정부프로그램이 지니는 부정적 낙인(stigma)으로 말미암아 친구와의 관계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엿보게 된다.

저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표에 대하여 놀리는 것에 대응하여 남북은 ‘한민족’이라야 하는 표현을 할 정도의 대응기제를 가지지만 그러한 기제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 2)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어쩌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조건이 탈북청소년들이 연하의 학생들과 동급

생으로 학교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 D의 경우는 연하의 동급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상황이 유발한 극단적 부정적 사례였다. 학교내의 불량학생들에 의해서 탈북청소년의 '나이많은'은 '늙은 3학년 새끼'로 불리울 만큼 극단적 형태로 놀림을 받게되고, 이러한 놀림은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중국에는 피를 보는 상황까지 몰고갔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교내에서 탈북청소년과 다투었던 학생들간의 갈등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나이가 어린 남한학생들이 하는 학업수준에도 미달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감이 극도로 결여되고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신을 '나는 바보, 병신이다'라고 할 만큼 비하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신감 상실과 자기비하는 친구관계를 경직시키고 교사에게 반항하는등의 사회적 관계에 부적응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부정적인 대안을 추구하기도 한다. 즉 공부를 못하더라도 힘이라도 세면 '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힘을 길러 누구든지 자기를 무시하면 '여자애고 뭐고 모두 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저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실제 연령대는 6학년에 해당하는데 동급생인 3학년 아이들과의 나이차이 때문에 '짜증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학급애들보다 자기연령에 비슷한 고학년(5-6학년들)과 사귀을 하고 있다. 한편, 남한 아이들은 그들대로 '나이많은' 탈북자 동급생을 배제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은듯하다. 그래서 결국 이들과 이들의 학부모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을 못따라 가는 한이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제 나이에 맞는 학년선택을 희망하기도 한다.

저학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그러나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클럽이 형성된다든가 하여 취미나 특기, 공통점을 가지는 학생들끼리의 모임을 활성화하면 교우관계를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는 사례도 보았다. 어떤 조사대상자는 연하(2살아래)의 동급생들과 별 무리없이 어울리고 있기도 했다.

### 3) 남한 청소년 혹은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북청소년에게 “남한 학생들이 어떤가?” 혹은 “남한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을 경우 많은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부정적인 인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처음 남한에 와서 친구가 없을 때 친구되어준 남한 청소년에게 평생 잊지않을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실제 교제의 경험이 부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남한에 온지 2-3개월 되는 경우에서도 또 2년이 넘은 경우에서도 남한청소년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면들이 먼저 제기된다.

‘의리가 없고 남자답지 못하다’, ‘싸가지가 없고 입만 살았다’, ‘기집애들 같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용한다’, “밥맛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일 밖에 모른다’ , 경쟁적이고 남에 일에는 신경 안쓴다’,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한다’, ‘버릇이 없다’, ‘여자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남자에게 막 대한다’, ‘나가 노는 것이 틀린다’ 등이 그 부정적 인식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탈북청소년들의 나름대로의 특정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탈북청소년들만의 인식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부모, 형제등을 포함하는 탈북자 성인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신의를 잘 저버

리면 돈에 좌우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의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인식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을 남한청소년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장애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는 없었다. 탈북청소년들의 토로하는 남한청소년과남한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적응초기에 경험하는 관계형성에서의 큰 기대에서 유출되는 실망을 배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남한사회 관계형성과 남한청소년문화에의 편입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남한아이들은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아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은 다른 탈북청소년들도 종종 언급하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묘사인데 단순히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라기 보다는 탈북 청소년 자신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차이를 본인 스스로 뚜렷히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남한청소년들의 차립새와 행태를 경원시하면서도 선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장애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미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예로서 탈북청소년 E는 자기또래의 남한 청소년은 모두 ‘밥맛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남한아이들은 ‘친구할 대상이 못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탈북청소년 E가 16세로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말 남한사회에서 경험한 부정적 인상에서 기인될 수도 있는 반면, 자신의 또래 청소년보다 검정고시 학원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생들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도 자기보다 나이가 2-3세 많았다고 한다.)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교제와 인간관계형성과정에서 자

신을 과대평가하고 대학생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동기에서 자기또래의 남한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경원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이 보이는 부정적 인식은 특정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형성, 특히 친구관계형성에 미온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북한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문화적 속성을 남한보다 더 온전히 보존했다는 설명(한성열, 2000)에 근거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이 여학생이 남한생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나 탈북청소년 N의 경우처럼 여학생들의 음주와 자유로운 언행에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4) 남한 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탈북청소년들은 학업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도 격차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컴퓨터게임, 만화, 연예인들에 관한 관심과 지식, 유행하는 대중문화(춤과 노래)에 관한 몰입등이 정착초기단계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낯선 풍경이 되고 있다. 어느정도 이런문화에 친근해지더라도 남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이문화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놀이문화를 매개로한 모임속에서 괴리를 발생시켜 탈북청소년들에게 소외감, 열등감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심적인 부담이나 어쩔수 없는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남한청소년들에게 유감을 가지기도 한다. 놀이문화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친구들과의 괴리감은 탈북청소년을 내심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상황을 친구들에게 내색하거나 털어놓지는 못하고 있

는데서 이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남한청소년들과의 놀이문화에서의 괴리는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게 만들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게 한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채팅등 친구들 없이도 할 수 있는 놀이로 보내게 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남한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가입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태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탈북 청소년 D의 경우에서 처럼, 학급친구들과 의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남한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중가요와 연예인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척하는 것과 같은 가식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학급동료들로부터 반응(호의적인 반응)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공부(학습능력격차의 해소)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은 남한청소년들과 섞여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과정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는 하나의 주요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남한놀이에서 소외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안위하 하는 하나의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은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부문에서 먼저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 놀이문화에도 가담하여 남한청소년들과의 어울림에서도 소외되지 않겠다는 단순하지만 나름대로의 자신의 남한사회적응 기획을 가지게도 한다.

수집된 질적자료들에서는 이러한 괴리가 초기적인 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정도까지 지속이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아마 적응과정의 대개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정착 초기시기동안 열등감, 소외감, 배제된 느낌들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과정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5) 전반적인 사회적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증언으로 제시된 사회적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과 배경은 자못 흥미롭다. 이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탈북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남한에서 친구사귀와 같은 사회적 관계형성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오기전 중국에서도 잘 안되었다고 보며 북한청소년끼리도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들을 정리하면 첫째,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많은데 이 지역은 북한사회에서도 제도적 영향력이 제일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서 원래 사회적 rule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일처리가 '너하고 나사이에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미시적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법규준수나 사회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도 부모들로부터의 사회화나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향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남한에 와서도 사회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openness)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부모에도 숨기고 잘 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주변에서 경험한 긴장에서 타인에게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문 환경을 말하고 있었다. 즉, 중국경찰인 공안에 항상 쫓기어서 자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 그래서 북한청소년들끼리도 터놓은 아이들에게만 전화번호 알려주게 되고 남한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비개방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재네들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이 물론 일반화되기 위하여 양적자료에 근거하여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출신 지역적 성향과 중

국등의 제 3국 체류경험이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 6. 탈북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탈북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심각한 갈등이나 반항 등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이주민들의 경우에서 보인 역할 갈등이나 역할전도현상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만한 근거는 제법 존재한다고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남한의 부모-자녀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에 옹하기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자녀들의 옷입는 것에서부터 청소년 자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공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탈북자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자녀사이의 일반적인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부모-자녀사이의 갈등근거들이 탈북자가정내에서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에서 일상적인 세대차이로 해석되는 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한 가치와 개인주의적 행태가 탈북청소년에게 해당할 때 그들의 부모는 “중국에 있을 때 보다 버릇이 나빠졌다” 라든지 “남한아이들 하는 (좋지않은) 짓을 따라한다”고 생각하면서 비교적 관점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려 할 것인데 반하여 그들의 자녀들은 힙합스타일을 복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는 부모들을 자기보다 남한사회의 문화에 덜 적응한 사람들로써 폄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에 뒤떨어지는 존재로 인

식될 때 부모들에 대한 존경이나 순종하는 마음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의 자료에서 발견된 것은 아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가족내에서는 가부장적 권위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우리들을 “목숨을 걸고 나를 데려오셨다”는 생각이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나 남한으로 데려온 부모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남한의 가치와 규범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 가족내에서 가장이나 가장의 배우자가 취업이나 창업등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런 경우 부모의 권위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자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남한의 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거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커졌다는 경험담(이기영, 2000)도 존재한다.

한편, 탈북청소년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년 미만의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문화에 노출된 후 가지는 외모의 지창, 진로문제등은 부모와의 상의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는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학교, 밖의 일을 집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생활에서의 실패와 가족의 해체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성장에 매우 막대한 타격을 가한다. 결혼실패와 가족해체는 탈북가족들에게 어느정도 빈번한 일인지는 파악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은 아닌 것 같다.

## 7.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천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살면서 가지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출처는 다양하다.

탈북청소년들은 발육부진과 영양결핍등으로 대체로 남한청소년들에 비하여 신체적 왜소한데 이러한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이 있고, 탈북시 헤어진 가족원(부, 모, 형제, 자매등)이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음으로서 이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다. 한편,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들로부터 전이되는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부담이 느껴지는 동시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다'고 말한 것처럼 상반되는 경험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에게서는 정서적 불안정과 외로움,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 없는 분노감, 북한생활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꺼려하는데서오는 예민함과 스트레스, 어울리는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데서 오는 열등의식과 자기비하감등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처럼 사춘기적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일주일간 학교를 안 갈정도'로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적갈등이나 혼란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가는 상황에서 부모들과 학교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지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혹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학교의 담임교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 VI. 탈북청소년 부적응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

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정책적이고 사회복지실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은 큰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 이유를 들자면, 탈북 청소년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탈북청소년 부적응에 대한 묘사는 양적연구의 패러다임으로 보자면 ‘일반화’의 힘이 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 제시의 의미가 누락될 수 있다. 둘째로는 이 연구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의 ‘세계’를 그려내는 데 있는 만큼 부적응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제시는 다소 치밀하게 토의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해보거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모색하기로 한다.

### 1. 학습부진에 대한 대책

학습부진의 부진을 극복하고 남한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나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혀서 학습부진의 부진이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제도안에서는 이렇다 할 보완책이 없다. 장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탈북청소년의 학습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시설)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현재 민간단체와 일부 전문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원한 후에는 대안교실형태의 계절학교가 지난 2001년 8월에 개최되기 하였다. 이러한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등의 야학등을 활용하기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제도교육에서의 특례제도뿐 아니라 이러한 학교외의 학습의 장에서 등록비, 수업비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탈북 청소년의 진학 및 진로지도 서비스제공

진학 및 진로를 지도할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그 정착과정을 돕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학교결정등에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인 형사가 이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의 취업보호담당관과 해당지역의 교육청의 인력중 1인으로 교육보호담당관을 선정하여 이 두 지원인력(취업보호담당관과 교육보호담당관)을 청소년의 학교진학, 진로선택, 아르바이트, 취업등을 지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학교, 검정고시학원, 일반학원, 아르바이트관련 구인시스템, 자원봉사자 대학생등을 연결하여 탈북청소년의 지속적인 진로형성에 트랙킹(tracking)하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3.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 및 상담교사의 역할 강화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형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적응 행태들은 대부분 학교 혹은 대안적 교육기관이란 학습의 장과 관련된다. 탈북자라는 사실로 인한 친구들로부터의 소외의 두려움과 동료와의 실제적인 갈등, 연하의 청소년들과 동급생을 이루는 상황에서 오는 부적응의 모습들, 그리고 이와 함께 탈북청소년들과 교사와의 관계정립도 매우 중요한 영역들인데 이러한 학습의 장에서의 사회적관계형성 및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담당교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담당교사가 탈북청소년의 적응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학교에 탈북청소년이 입학할 경우, 정부의 담당부처에서 해당 학생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학생과 연결된 정부의 행정시스템(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 (혹은 새로 만들어진다면 교육) 보호담당관)을 담임교사와 공식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시기에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집단적으로 소집하여 탈북자문제와 적응문제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들이 탈북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갈수 있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4. 다양한 민간자원의 조직과 동원이 필요

학교와 정부부처 이외에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

면 일반적인 탈북자의 적응문제와 마찬가지로 탈북청소년의 적응의 문제 또한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서 정부나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 탈북청소년의 부적응문제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듯이 문제대응책 또한 다중적인 것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을위해 다양한 민간자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로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요소들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부모교육프로그램, 탈북자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남한청소년과의 결연과 접촉을 유도할수 있는 프로그램(남북통합교실, 멘토링, 홈스테이등),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프로그램(주로 자원봉사자가 지원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등이 된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수행하거나 제공할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도움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은 탈북가족 및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교회 및 종교기관등이 될 수 있고 지역성을 초월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문제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기관과 청소년 문제관련 시민단체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들을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조직하는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조직화에는 정부의 전문실무자와 전문학자들의 현실적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민간기관실무자들의 사전 준비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5.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시설내에서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마지막으로 언급될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시설(‘하나원’) 내에서의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최근 담당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청소년탈북자들의 교육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에 나온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약 2개월)동안 가능한 집중적인 청소년대상 사회적응지원 교육이 제공된다면 사회편입직후 경험할 혼란과 무지, 그리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엘리(1999),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김진윤, 윤여상(1997), "탈북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통일원. 통일 교육·홍보(V). '97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 도종수(200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비교,"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자료.93-114.
- 독고순(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미석·정승원(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연구보고서.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요셉(2000),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탈북자문제 현황과 대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자료 (비간행물), 2000. 4. pp. 9-16.
- 박종철·김영운·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희정(1998),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북한인권시민연합(2000-2001), 북한동포돕기 대학생자원봉사 가정방문기록서(비간행물).
- 북한인권시민연합(2000), 탈북자를 위한 1:1 가이드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세미나 녹취자료(비간행물).
- 선한승(1995a),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선한승(1995b),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엄명용(1999), “탈북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한국사회복지학 제 37호.
- 오혜정(1995), 북한귀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유태균(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윤덕룡(1999), “탈북자 적응의 사회 경제적 문제-보호 경찰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학술 발표회 자료 (1999. 12. 8)
- 윤덕룡·강태규(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심포지움 발표문.
- 윤여상(1994), 북한귀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윤여상 (1999),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탈북동포돕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통일교육원 1999.7.15-17. pp. 4-18.(비간행물).
- 윤여상(2000),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제 2회 탈북동포돕기

-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교육교재(비간행물), 통일교육원, 2000.7.1-3, pp. 6-23.
- 윤인진(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탈북동포이해 기본교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편.
- 윤인진(2000),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3권 제2호(통권 104호).
- 이금순·송정호(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 이기영(1999), "NGO와 정부의 연결관계의 모색: 탈북자 정착지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학 37호.
- 이기영(1999), 탈북자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161-175.
- 이기영(2000),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 가이드결연봉사자 교육세미나 토론 기록서 2000. 9. 16 (비간행물)
- 이기영(2000),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가족복지분과 발표논문. 2000. 10. 청주대학교.
- 이기영·배화숙(2000),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사회복지 2000년 가을. 146호.
- 이상만(2000),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향.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미간행물.
- 이소래(1996),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28(4): 739-789.
- 이정우·김형수(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6-08.
- 장창호(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사회사

업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우택(1995),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귀순자를 중심으로”, '95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 V, 통일원, 1995, pp. 1-66.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전우택(2000). “탈북아동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제 3장), 서울: 오름. pp.110-130.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2, 서울: 도서출판 오름.

정유선(1998), 귀순자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좋은 벗들(1999a),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1999a년

좋은 벗들(1999b), “국경도시의 아이들” 1999년 3월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http://jungto.org/gf/>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비간행물)

통일부(20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책지원과 통계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정과 여성의 역할. 연구보고서 드래프트 (비간행물).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한만길(1997), “북한주민의 통일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한성열(2000), “북한의 문화적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자료. 131-153.

Almqvist, K., Brandell-Forsberg, M.(1995), “Iranian Refugee Children in Sweden: Effects of Organized Violence and Forced Migration

- o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 Orthopsychiat.* 65 (2).
- Bernier, D.(1992), "The Indochinese Refugees A perspective from various stress theorie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15-31.
- Berry, J.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pp. 223-239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 Berry, J.W., Kim, U., Minde, T., and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1 (3): 491-511.
- Delores, J.(1997), "Psychological risks of immigrant students." *The Education Digest*, Nov: 51-53.
- Eisikovits, R.A.(2000), "Gender Difference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Styles Of Immigrant Youths From The Former U.S.S.R. In Israel." *Youth & Society* 31(3): 310-331.
- Florsheim, P.(1997), "Chinese adolescent immigrants :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43-163.
- Glaser, B.G.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Aldine.
- Gold, S. J.(1988), "Refugees and Small Business: The case of Soviet Jews and Vietnamese," *Ethnic and Racial Studies* 11(4): 411-438.
- Goldberg, E. R. (1980), "Relocation and the family: A crisi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G.V. Coehlo and P. I. Ahmed (Eds.), *Uprooting and development: Dilemmas of coping with*

modernization : 211-231

- Grove, C. L. & Torbiorn, I.(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 Haines, D., Rutherford, D. and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310-319.
- Hein, J.(1994), " From Migrant to Minority : Hmong Refuge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Inquiry*, 64(3): 281-306.
- Hirayama, K., Hirayaman, H. and Kuroki, Y.(1995),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s in Japan and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38, 1995, pp. 165-76.
- Jacob, A.G.(1994), "Social integration of salvadoran refugees," *Social Work*, 39(3): 307-312
- Kelly, P. (1992), "The Application of Family Systems Theory to Mental Health Services for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Work with Immigrants and Refugees*, The Haworth Press, Inc.
- Kelly, P. (1994), "Integrating systemic and postsystemic approaches to social work practice with refugee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75(9): 541-549.
- Lee, E.(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 167-179.
- Lovell, M. L. Tran, T.V. and Nguyen, T.T.(1987), "Refugee women: Lives in Transi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30: 317-325
- Nguyen, S. D.(1982),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ntal health nee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iatric Journal*

- of the University of Ottawa, 7(1): 26-35.
- Padgett, D.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Rubin, A & Babbie, E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ole.
- Strober, Susan . B.(1994), "Social work interventions to alleviate Cambodian refugee psychological distress,"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7, pp. 23-35.
- Tran, T.V. and Nguyen, T. D.(1994), "Gender and Satisfaction with the Host Society Among Indochin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 (2).
- Williams, Carolyn L. and Berry, J. W.(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 Appendix I: 탈북자 청소년 조사결과 질적자료의 영역별 분석

아래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코드(범주)들을 발굴하고 각 사례들에 대하여 연구자의 노트(notes)를 몇가지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각 발췌문(transcripts)에서 밑줄 그으신 부분은 코드화하는 기본단위로 삼았다.

### <학업을 위한 장(장)에서의 적응경험 해석>

#### 1. 학업성취영역

A : 수학이나 영어, 국어 자신 있는데요...

R : 뭐가 걱정되는데?

A : 역사랑 사회.

R : 음...그게 너무 다르지...

A : 어....(의기소침) 뭘 소린지 정말 못 알아먹겠어요.

<중략>

A : 도덕이 좀 저희들하고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깐 헛갈려요.

R : 헛갈린 거지 어려운건 아니지?

A : 음...글쎄요...헛갈린다 하면...

R : 음...좀 다르잖아. 어떻게 다르냐하면....역사랑 사회같은 경우는 하나도 몰랐던 거기 때문에 헛갈릴게 없잖아...혼돈스러울게 없는데...도덕을 얘기했던 것 처럼 그 쪽에서도 배웠는데...내용이 다른거잖아.

A : 내용이 달라도 많이 달라요. (탈북자 청소년 A)

note: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보다 역

사회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크다는 것이 발견됨. 그리고 도덕과목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 적응해가는데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원 진도는 잘 따라가는데, 역사나 사회가 힘들다. 역사가 좀 다가왔지만...완벽하게 모른다. 다른 과목은 괜찮다. 다른 과목은 괜찮다. 학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나만큼 많이 오른 사람이 없다고 한다. 성적이 항상 무드를 타고 있다고 한다. 시험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본다. 수학은 거의 대부분 100점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 같은 경우는 진도가 없다. 향상이 전혀 안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해서 구분해야하는데 혼란스럽다. 자원봉사자에게 영어와 수학을 배운다. 봉사자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 (탈북청소년 B)

note: 역사와 사회, 영어가 힘들고 수학은 잘한다. 검정고시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경우인듯하다.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진도가 매우 빠른다는 언급으로 판단하건대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탈북자 학생의 능력과 적절히 조화되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응답자가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과과목 외에도 PC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었다. 즉, 사무자동화, 엑셀 등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었으나 응답자는 이러한 과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학원에 다닌다거나 하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학교에서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에 언급한 기능을 더욱 자세하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년 동안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자가 기능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컴퓨터 관련 과목 때문에 전체 성적의 평점이 떨어진다는 사

실을 응답자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완책을 갖고 있지 않다.(탈북청소년 C)

note: 실업계 학교의 경우 일반학습이외에 특정 기술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주로 정보화관련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분야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격차와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해당 탈북청소년 자신의 의도적 회피와 게으름 때문일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교사와 부모들의 비 적극적인 지도일수도 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학업격차의 보완책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반 과목의 경우 수학은 북한에서도 했던 과목이고 혼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과목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국어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만 한데 영어 과목의 경우는 난감하다고 한다. 아직 역사 등의 과목은 배우고 있지 않지만 다른 탈북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단,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탈북청소년 C)

note: 수학 (잘함)/ 국어 (할만함)/ 영어(난감)/ 역사(부담스러워함)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하면 된다는 다소 막연한 기대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고교 입학전부터 대학진학을 희망했으나 실업계고교를 진학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교진학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진로지도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학교에 다니면서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혼자서 쳐진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한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등수가 꼴지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친구들과 조금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탈북청소년 D)

note: 중학생의 경우로서 학업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16세의 북한소년이 남한에서는 중학교 1년에 재학하는 경우 인데도 학교에서 꼴찌에 가까운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부문의 낮은 성취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간의 친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탈북청소년의 특별한 경험이라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의 일반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함께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 “C 클럽”이라는 또래집단이 있다고 했다. 이 “C 클럽”은 음악시간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응답자의 같은 학급 동기생 44명중 12명이 C등급을 받았는데 이 12명이 친해져서 만들어진 또래집단이다. “C 클럽”은 교내·외에서 함께 다니는데, 보통 노래방에 간다거나, 떡볶이 등을 함께 먹으로 다니거나 집이 비는 친구들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게임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의 놀이를 한다고 한다.(탈북청소년 C)

note: 위와 비슷한 경우로서 학업수행과정에서의 낮은 성취가 친구들과의 교제들을 가능하게 한 또다른 경우이다.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공부라고 하였는데, 특히 영어가 제일 힘들다고 한다. 남한에 와서 알파벳을 알았는데 응답자는 알파벳을 배우는 과정인데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은 문장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그러고

여러 단어들을 묶어서 한단어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의 수준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점이 어렵다. 혹시 시험에 떨어질 것이 너무 걱정스럽다고 한다. 특히 시험에 떨어지면 “좌절”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 시험에 붙은 후에 그 다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과 창피하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고점 붙은 후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점을 보고 일년 정도 쉴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친구랑 3년 동안 갈까하는 곳이 있는데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곳이라는 것...군대는 안가기 때문에 갔다와서 대학에 가면 여기 애들하고 비슷해지니까...라고 대답하였다. (탈북청소년 E)

note: 영어가 가장 힘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큼/ 고점과 대점을 목표로 함.

학교과목중에서는 사회가 재미있고 영어, 수학이 어렵다고 한다. 남한아이들이 100을 한다면 자신이 얼마정도인가의 물음에 한 60%정도 따라간다고 말한다. 저녁때 자신의 공부를 도와주시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나혼자 한다. 부모들이 공부의 내용 잘모른다고 한다. 남한아이들의 공부 막하고 잘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더 잘해야지”하는 결심을 한다. 못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은 한적없냐는 질문에 아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안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외에서는 구문영어, 합기도, 컴퓨터 등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자원봉사대학생들에게 과외공부도 한다고 함. (탈북청소년 G, 남, 초등학교 6년)

note: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공부를 지도하기가 힘들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한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종종 있는 일인데 북한에서 온 경우 더욱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자가 부산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의 증언에서도 비스한 언급이 제시되었다.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공부를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은 강한 것 같다.

학과목에서 재미있는 과목은 ? 도덕, 국어, 음악과목

힘든과목은? 영어, 수학, 사회, 물상

부모님께서 저녁에 공부하는 것 도와주시나?: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면 아빠가 도와줘요.

남한사회에 나온지 8-9개월이 지났는데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아이들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같은 거 들지 않나?: 저는요. 춤같은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춤은 잘 추나? 다른 아이들이 잘 춘다고 그래? 글썄요.(탈북청소년 H, 여, 중학교 1년)

note: 이 청소년은 특별한 경우인 듯하다. 이 학생의 경우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로서 학업부문에 대한 성취에 별 흥미없이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춤에 자신의 성취욕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친구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사춘기를 앓는다(자신의 표현으로)고 학교에 일주일이나 가지 않은 케이스의 청소년이다.

공부는 국어, 쓰기, 수학 다 좋아해요. 근데 영어, 수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시험점수는 백점 점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네가 3학년하고 같이 하니까 백점 맞아도 당연하지. 계속 백점 맞아야지. 고학년 올라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와서는 공기놀이하고 TV보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부모님은 늘 공부를 좀 많이하라고 말씀하신다. 글짓기, 수학, 컴퓨터학원, 한자,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종합학원을 다니고있는데 한달에 6만원한다.

(탈북청소년I, 여, 초등학교 3년, 13세)

note: 초등학생의 경우라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에 비하여 나이가 3살 정도 많은 나이의 탈북청소년이다. 이러한 연령차이가 학업을 잘 따라가게 한것인지 아니면 해당 탈북청소년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남한 아동처럼 부모들이 공부에 대한 요구를 하는 편이며 그래서 방과후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 것 같다.

또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다지 취미도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너 바보 아니냐?”라고 한다고 하구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친구들은 몇 명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별로 마음을 터놓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 자체는 얌전하고 착한 편이지만, 속으로 웅어리진게 많다(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는 생각이 듭니다.(탈북청소년K, 여, 여중생 13세)

note: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심각한 사례로 보인다. 중학생으로서 학습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양인데, 같은 연령대로서(13세) 초등학교에 간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어쨌든 막바로 중학교를 진학한 모양인데 북한에서 초등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나 부모들이 원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초등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아마 연구자의 지식으로 보건대 학습능력차가 심각할 것이다. 더구나 아버지로부터의 잦은 꾸지람과 야단으로 말미암아 가출한 적이 있는 경우라하니 가정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그럴 것 같다. 현재 이 청소년에게는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보충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동생에 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나 나름대로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는 의기소침해지기 쉬웠고 금방 포기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장래에 무엇을 해야할것이며, 학력사회에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이 나이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에 의하면, 아동이 몸이 자주 불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붓는 것이라 했다 합니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꽤나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통했다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썩 좋지 않고 학력사회라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더군요. 대학에 대한 부담감... 원래 중학교 때는 공부 잘 했던 학생이 너무 공부잘하는 고등학교 가면 의기소침해져서 공부하지 않거나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과 비슷한거 같아요.(탈북청소년 L, 여, 13세, 초등학교 재학) ·

note: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로 보인다. 심적 부담으로 육체적인 비만까지 생기는 정도이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의 학습능력에 있어서의 정체감이 남한에 와서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벌써 남한의 경쟁적 분위기를 체득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비록 학업이라는 제한된 범위가긴 하지만.

현재 교회에서 야학을 하면서 전과목을 배우며 독학하고있는데 원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학습능력이 매우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생각하기로 이 사람 바보아닌가 할 정도로. 공부내용과 앞으로의 학업계획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함. (탈북청소년 N, 남, 21세, 독학중)

note: 고연령 청소년일수록 학교제도에 들어가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검정고시나 독학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교회의 야학같은 곳이 학교, 학원, 검정고시학원, 자원봉사학습지도 외의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임을 알게 한다. 그리고 고연령일수록 학습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에는 힘이들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역시 걱정을 하면서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현재 대학입학특례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된다.

부모의 남한입국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투자과 지도에 적절한 능력이 없다. (불특정 탈북 청소년)

## 2.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담임, 학원에서의 강사)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학교와 사회에 대해서 도전적이 사상을 가진 국어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한다. 미혼이시며 여자분이신 데 담임이시다. 응답자가 탈북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친구들과 주변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준 것을 계기로 신뢰를 형성한 단계에 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응답자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또 반 친구들에게 거부감을 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탈북청소년 C, 남, 19세, 고등학교 1년 재학)

note: 이 경우는 교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응답자의 표현에 의하면 도전적이고 민주적인 소양을 지닌 교사로서 탈북자와의 약속(탈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고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자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탈북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즉, 탈북청소년

들이 학업의 장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해가며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교사의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교사들이 칭찬하고 이러니깐 주변에서 응답자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응답자를 더 많이 지목하여 발표를 시키고, 칭찬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의 질투가 너무 부담스러워 선생님께 그러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D, 16세 남, 중학교 1년 재학)

note: 학교 교사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태도/ 의식적인 지지는 역효과

응답자가 탈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응답자를 위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신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응답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가 교사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탈북청소년 D)

note: 교사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탈북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 강화 노력 보임/ 탈북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학급에 응답자 외에도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하셨는데, 면담 후에 응답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5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응답자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D)

note: 교사의 지지적 태도가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매

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 학생의 경우 학급에서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

학원에서 싫어하는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수업을 빠지면 끝까지 따라와서 자른다고 협박하고 때리고 하였다고 한다. 이유 없이 때리고 학원에서 퇴학시킨다고 협박하는 행동들을 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응답자는 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선생님은 영어선생님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은 애들을 포기한다고 위협하고 좌절하는데 영어 선생님은 무조건 좋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이 악마라면 영어 선생님은 천사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탈북청소년 E, 남, 16세, 김정고시학원 재원)

note: 학원교사와의 관계 (좋은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부족)

이 경우는 어떤 선생님이 자신에게 좋은 선생님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짐. 무조건 좋다고 하는 선생과 수업을 빠지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선생 중 탈북 청소년 E는 전자를 선호하고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대체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선생님이 잘해주신다고 한다. 자신이 북한에서 온 것 숨기고 선생님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 발표할 때 자신을 자주 시키고 자신이 손들면 대개 발표하게 해주신다고 함. (탈북청소년 G, 남, 15세, 초등학교 6년 재학)

첫날은 오후에 학급에 와서 인사하구요 저는 그냥가구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조회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동고했는데 아이들이 잘해주고 선생님께서 특별히 회장, 부회장 불러서 신경쓰라고 말씀하시고. 학교생활에 힘드는 것 없구요.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구요. (탈북청소년 H, 여, 15세, 중학교 1년 재학)

한 주일 동안의 일을 말해달라: 지난 한 주 동안은 힘들어서 휴식했어요. 학교에 안 갔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요.(탈북청소년 H)

note: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는 듯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친하다는 친구들 말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는 정확한 판단이 안섬. 나름대로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심적 동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일주일동안 안가는 것에 대한 부모의 재제가 없는 것은 남한식 교육문화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재제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우리는 아동들을 접할 때 그들의 심리적 요소를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겉으로 보기엔 사회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면에서는 어른들 못잖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우매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학습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도리,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한 번의 가정방문보다 열 번의 전화통화가 그들에겐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걸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빨리 느끼겠지요.)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칫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여자아동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탈북아동이라고 해서 다른 아동들과 차별성을 두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어서 본 아동이 탈북한지 모르는 반 친구들이 시기하거나 선생님과 무슨 관계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진정 이것이 옳은 걸까요? 선생님

은 이 친구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신 건지도 모르지요.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셨을지도... 하지만 우리 친구는 그것이 하나도 고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보다는 평범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탈북청소년 L, 여, 13세, 초등학교 재학)

note: 자원봉사자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탈북자도 어른들 못지 않은 사회적응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함. 적응의 난관의 정도는 비슷하게 경험할 것이다. 단지 부적응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이 청소년 역시 선생님의 지나친 배려로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 진학결정의 문제점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대학포함)

응답자는 현재 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집은 인천이다. 처음 춘천에 정착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인천 공단에 취직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김.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변보호 담당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함. 신변보호 담당관의 권유로 응답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학교 분위기도 안좋고(공부도 안하고, 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50분으로 유동적이고, 점심 시간도 70분으로 늘어나는 등 분위기 좋지 않다. 더욱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영어 등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등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공부하는 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 (탈북청소년 C).

note: 탈북자 청소년 c의 경우는 진학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실업계학교를 선택후 매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안내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은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사회진입 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영역인 학교진학 혹은 학원선택(검정고시준비과정 포함)에 있어서 제한된 정보와 안내만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사례이며, 이러한 진학과정에서의 선택의 실패는 청소년의 앞으로의 남한사회적응과 미래생활상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R : 음...이...자신감!(웃음) 의기양양 기세등등 그러면...너는 니 생각에 지금 이 패턴으로 죽 나가면 지금 하는 이 방법대로 하면 언제쯤이면 대학 들어갈까 같애?

A : 음....그냥 이대로 죽 나가면...뭐..물론 특례로 들어간다 하지만...수능시험 볼려그러거든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근데...아무리 자신감 있다고 해도 저보다 더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R : 그 때...A가 언니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2년 정도면...2년? 2년에서 3년 그 정도면 될려나?

A : 늦어도 21살이면 들어가야죠.

(탈북자청소년 A)

note: (특례입학의 조건과 학업성취관계) 대학입학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약간의 요구사항이있지만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A : 네. ... 17살짜리 언니가 고삼인데 ... 하루에 2시간 잔다구 그러더라구요..

R : 어떻게 사냐...2시간 자고...

A : 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차비하고 5시까지 학교에 나간데요.

R : 아....자극되지 않냐? 그런 얘기 들으면 ... ‘나두 좀 열심히 해야하는데...’ 이런 생각 안드니...(웃음)

A : 근데...제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개네를 따라잡는지...갈피를 못 잡는거예요.

R : 어떻게 열심히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거야?

A : 지금이라도...솔직히 지금이라도 만족해요. 제가 공부하는 거...더 이상해도 더 싫어요. 그냥...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언젠가는 되겠죠..

(탈북자청소년 A)

note: 공부하려는 열의는 있으나 중국에 있으면서 몇 년간 공부를 하지 않아 감을 놓친 상태에 있음.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취해야할 수준의 학업성취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지 모르나 그 후 대학학업에서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진학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검정고시같은 것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하다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고3으로진학하는 것도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가 고 3으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학업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고 3은 입시전쟁돌입시기이므로 교사들이나 교우들이 자신에 대한 배려나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려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으로 다시 가라고 했다. 매우 싫은 눈치이다. 북한에서 온 같은 또래에게 연령아래의 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를 좀 들은 눈치다. (탈북청소년 F)

note: 많은 경우의 탈북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 정규학교

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인 교육형태인 검정고시학원을 찾아서 '학력인정'만을 받는 것이 나은지이다. 이런 고민은 고연령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것 같다. 초등학생들은 나이차이 좀 나도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연령차이에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더욱 심할 것이고 또한 학력의 격차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체감의 혼란도 겪지 않고 집중적인 단기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기대하여 검정고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진로설정 지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ooo에 살고 있는 OO은 현재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것에 취업하여 한 달에 7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 일을 하기위해서 오토바이면허도 땀 단다. 그리고 그 일이 재미있다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려 한단다. 연구자가 아르바이트해서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70만원정도를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완전 취업이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청소년 F는 경제적인 이유로 빨리 아르바트를 하고 싶어한다. 그냥 돈 까먹고 앉아 있으면 안될 것아니냐라고 반문한다.(탈북청소년 F)

note: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국집 배달하는 친척이 하나의 모델링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취업과 진학에 대한 뚜렷한 선택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경제를 위한 취업과 교육적 투자에 대한 비교적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에게로 서든지 자신이 그렇게 믿든지 간에 매우 강하고 대학을 진학하려는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불특정 탈북청소년)

note: 탈북청소년이 대학진학이유는 경제적 성취에 대한 욕구와 직결되어 있다. 부모들에게서든 다른 성인탈북자들에게서든 사회화된 것이 아마 남한에 온 이상 하루빨리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자신이 탈북한 대가를 지불받아야겠다는 것일 것이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고려대 무역과를 나와서 (왜 고려대냐고 물으니까 좋은 대학이니까라고 말했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 제일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이라고 하니까 서울대학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고려대학을 생각한다고 함. (어디서 부모님이나 다른 탈북자들에게서 들은 바가 있는 모양이다.) (탈북청소년 G)

#### 4. 비정규교육기관(검정고시 학원 및 일반학원)에서의 인간관계형성

(탈북청소년 A)

A : 그 기집애가 음료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가지고 가는데... 들었잖아요...들어 가지고 가는데 지가 나면서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료수가 어떻게 됐겠어요..쏟아졌죠. 팔 소매 젖었어요. 어이가 없어서...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던지면....내가 참겠는데..

R(researcher) : 미안하다구?

A : 말안던지구라도 그냥 지나가면 참겠는데...내가 숙 돌아봤거든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췌려보면서...'기집애...뭐 어찌고저찌고....미친 기집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그걸...내가 잘못해서 쏟은 것

도 아니구, 어이가 없어서...그날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있죠.

근데 기집에 15살인데 담배나 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태도 반칙에  
저한테 지금....씨~~기집애가...재수없어가지고...

note: 학교이외의 장(場)에서의 부적응은 거의 거친환경에 부딪히게  
되므로 학교와는 또다른 적응의 난점이 존재한다. 학교와는 달리 구성원  
들의 연령, 성별, 삶의 배경등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학업의 이수과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탈북청소  
년 A는 초기에 학원생과의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음. 매우 흥미 있어 함. 대학 진학도 중국어  
학과에 진학하여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함. 중국어 학원에 다녀오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컴퓨터 하다보면 잘 시간이 금방 된다고 한다.

영어나 일어는 해보지 않아서 중국어를 한 3년 했으니깐..중국어를 살  
리려고 한다고 함. 등급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받으려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어 학원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매우 친해졌다. 학교 다니고 동성  
친구들이다. 아직 이성친구는 없다. (탈북청소년 B)

note: 비학교 학업성취의 장에서의 긍정적 적응. 학교대신에 일반학원  
이나 검정고시학원등이 많은 경우 탈북청소년의 학습의 장이된다. 그러므  
로 이러한 대리학습장에서의 학업시스템과 학원친구와의 사귀이 적응의  
장이되는 것이다. 이들의 답변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연구자의 자료수집으로 판단하건대 교우 및 친구관  
계형성이 그리 쉽지 않다. 이 케이스는 나름대로 남한학습 시스템에 얽매  
이지 않고 자신의 특기라고 할 만한 중국어 능력을 살리려하고 있는 미래  
의 남한사회적응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학원 내에서는 한 반이니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된 친구들이 있다. 날라리같은 친구부터 순진한 아줌마 같은 친구들 등 다양하다고 한다. 대검을 준비하는 형님도 알고 있는데, 이 형들과는 한강에서 형들과 여자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았던 일,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형 가게에서 밤새 놀았고, 심심하면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오락실 가고 논다고 한다. 웅답자는 당구가 150원다고 한다. 술 마시고 여자친구 만났다고 한다.

두 달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연상이었으나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한다. 여자친구들은 많이 만나봤으나 보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친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탈북청소년 E)

note: 검정고시 학원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형성 (주로 공부보다는 노는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학업성취를 대리적으로 제공할 검정고시 학원은 오락과 유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비울적으로 많은 탈북청소년이 검정고시학원을 학업성취의 장으로 택할 경우 적지않은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적 관계형성(친구사귀)에 대한 경험의 해석>

### 1.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교우(친구)관계

“음....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 다 아는거 같아요. 저 북한에서

온거. 학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학교처럼 뭐...손바닥만한 학원에서 모른다느거 거짓말이고, 그냥 선생님이 아는데...저...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건방지고 재수없어요. 뭐 말할 때 마다 맨날 ‘북한 놈들 북한 놈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가, 저희는 그렇게 교육 안받았어요. 북한에서. 남한 놈들 이렇게 안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속으로는 존나 재수없다 저 새끼 정말....이러구요...되게 건방져요..”(탈북자청소년 A)

note: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받은 또래의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

“근데..개 앞으로 외국에 자주 나갈꺼 같아요. 친척도 있구요. 그리고 개네 엄마가 개...지금 일본어도 하구, 뭐...한자 공부도 해요. 중국 대만도 데리고 가겠다구 하구요. 일본에도 데리고 가겠다구 하구요. 뭐...한 5개 나라에 데리고 돌겠다고 그런데요. 개네 엄마랑 만나 봤거든요. 제가 거기서 온 것도 알아요. 제가 애가 특별하게 똑똑한거 아니깐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개가 언니 나 솔직히 언니가 거기서 온거 눈치챘다고, 근데 17살짜리 애는 아직도 눈치 못챘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12살짜리 애한테만 말한거예요”. (탈북청소년 A)

note: 자신의 출신(북한)을 알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탈북자 청소년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자신있어 하지 못한다. 남한아이들이 놀리거나, 친구사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심한 경우 혼자서 “왕따”될까봐 쉽게 탈북자란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학교같은 곳은 학원에서보다 탈북자란 사실이 더 잘 인식되기 때문에 숨기기가 힘들지만...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친구가 없으나 중국어 학원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만나 즐거워하고 있다. 중국어 학원 친구들은 응답자와 같은 나이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이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래 친구들의 관심사나 학교 이야기 등의 정보를 얻고 이것을 토대로 채팅친구들과 남한 청소년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응답자는 매일 채팅을 하는데 여기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사는 동네나 학원 밖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응답자는 새로운 남한 친구를 사귄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본인이 탈북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심지어 하나원에서 함께 지냈던 동기들에게도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다른 탈북 청소년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탈북청소년 B)

note: 채팅으로 친구의 대리적 만족추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없음/ 탈북사실의 숨김/ 같은 탈북청소년들에게도 집전화를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탈북자'란 꼬리표를 달기 싫어함.

주변에 응답자가 탈북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주변의 반응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좀 지질구레한 곳에서 왔다고 무시한다거나 나를 동정한다거나 예전처럼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억양이나 사투리가 있어서 중국에 3년간 있으면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갔다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C)

note: 탈북사실의 숨김/ 탈북자신분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될까 두려움/

중국에 있었다고 거짓말함/

아직까지 응답자가 탈북한 사실을 알리진 않은 상태지만 졸업하고서도 계속 만나는 친구가 된다면 탈북 사실을 이야기 할 계획이라고 한다.  
(탈북청소년 C)

note: 탈북청소년이 가지는 교우관계에서의 걱정거리중 가장 일반적  
인 것이다. 즉, 자신의 출신에 대해 교우들이 알 경우 친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것. 이러한 자기출신에 대해 숨기는 것은 탈  
북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며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속에 지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탈북자란 사실  
을 나중에 알게될 경우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던 친구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3월말 정도에 탈북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응답자가 적극적  
이지 않아서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고, 같은 반 친구들  
이 사용하는 은어, 속어, 욕 등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어휘들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친구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탈북청소년  
D)-탈북자라는 사실은 학교친구사귀를 어렵게 만듦/ 언어에서의 차이가  
출신을 구별짓는데 기여

note: 탈북청소년 자신의 성격이 교우관계 형성에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학급내에서의 언어문화의 이질성과 비수용성은 교우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가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고서 말투가 이  
상하다거나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거나 것으로 놀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됨. 응답자에게 친구들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빨갱이’, ‘김정일’ 이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리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주변에서 응답자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응답자의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였고, 상소리나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또한 응답자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웅대해주지 않아서 주변 친구들이 응답자를 이런 류의 사람으로 낙인찍어서 대하였다. 더욱이 응답자가 탈북 청소년이라는 것이 전교에 다 퍼졌다. 응답자는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D)- 학교에서 소외되는 과정

note: 탈북청소년이 학교에서 소외되는 다양한 조건 및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말투, 어휘에 대한 학급동료의 조롱/ Sex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를 거부함--> 조롱과 낙인을 참음 (자신의 출신이 알려지고 이에 대응하여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이러한 비대응으로 왕따되는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응답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식을 공짜로 먹는데, 이 사실을 친구들이 알고 무시 당할까봐 급식을 나눠주면 급식을 공짜로 먹기 때문에 이 급식 나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자청했고, 이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탈북청소년 D)

Note: 생활보호제도로 인한 부정적 낙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현재 응답자의 친구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이 자기를 북한에서 온 애라고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한다. 응답자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 물었는데 단지 신기해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이 응답자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대답자가 왜 응답자의 친구들이 응답자가 북한에서 왔다고 느끼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탈북청소년 E, 남, 16세 검정고시학원 재원)---탈북자란 출신에 대한 친구의 반응(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응답)

note: 이 경우는 자신이 탈북자란 사실에 개의치 않고 당당히 밝히는 경우였으며, 그 후로도 이러한 탈북출신이란 사실이 관계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 사실 때문에 소외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경우이다. 다만 신기해 할 뿐이다.

자신은 반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남학생들이 자기를 놀리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아직 자신이 북한에서 온 건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탈북청소년 G, 남, 15세, 초등6년재학)

저는 3월 16일에 학교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 잘 대해 주었어요.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은 반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예기할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해서 학교에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게 되었어요.(탈북청소년 H, 여, 15세, 중학교 1년재학)

학교에서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빨갱이라고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장선생님께 일러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놀리는 애 없었어요. 학교 친구들이라는 제일 처음 만날 때 북한에서 왔다고 서먹할때가 제일 어려

위요.(탈북청소년 I, 여, 13세 초등3년 재학)

자습하고 공부하고 공기하고 그것밖에 안해요. 점심시간에 나가 놀아요. 친구들하구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친구들에게 얘기 안했어요. (J, 여, 13세 초등3년)

우선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무척 싫어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담임선생님이 OO이가 전학을 간 다음날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 친구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서 전학을 온 이후로는 더욱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합니다.(M, 여, 15세, 중학재학)

여기서는 친구들하고 말이 잘안통하고 왕따를 당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왕따가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반애들 몇 명에서 다음에는 어떤애 차례다 그러면 바로 그애가 왕따가 된다고 하네요. OO이도 북한에서 넘어 왔다는 이유로 왕따가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는지 눈물을 참았다가 흘리더군요. 아이들이 아직도 북한에 대하여 꺼려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6.25같은 때 반공 비디오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분위기는 OO이에게 많이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OO이가 '우리는 한민족이야'라고 얘기해도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 기록서)

note: 저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꼬리표에 대하여 놀리는 것에 대응하여 남북은 '한민족'이라하는 표현을 할 정도의 대응기제를 가지지만 그러한 기제가 효과적이지는 않음.

## 2.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응답자는 학교에서 본인보다 2살 어린 동생들과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함께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 “C 클럽”이라는 또래집단이 있다고 했다. 이 “C 클럽”은 음악시간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응답자의 같은 학급 동기생 44명중 12명이 C등급을 받았는데 이 12명이 친해져서 만들어진 또래집단이다. [중략] 서로 잘 통하고 2살 어리지만 그런 느낌 없이 잘 지낸다고 한다.(탈북청소년 C) --긍정적 케이스

note: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클럽이 형성되어 교우관계를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는 케이스이다. 그리고 연하(2살아래)의 동급생들과 별 무리없이 어울리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적은 연령차이 (2-3세정도)는 다른 교재의 장이 보장된다면 (학교, 학원등과 같은) 친구사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3학년 선배들과 응답자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전교생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선배들이 놀리고 시비를 걸고 했다고 한다. 보통 체육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서 선배가 시비를 걸고 때리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덤벼려고 해도 응답자가 맞아도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참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응답자는 북한 사람이니깐 누가 자기를 편들어주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들이 축구를 하자고 하는데 ‘저 새끼 3학년이래’, ‘야, 너 늙은 3학년 새끼’이런 말들을 하고, 학급 친구들을 때리고 그러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싸움이 벌어졌다. 3학년 선배들은 불량선배들로서 학급 친구들이 말리고 그랬는데 자꾸 시비를 걸고 더

이상 참기 싫어서 주먹다툼을 하였다고 한다. 불량 선배들 중 우두머리와 싸움을 하였는데 응답자가 지지 않고 수세에 몰려 선배의 배를 몰아서 피가 나게 하는 상황까지 가는 중에 선생님이 오셔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방과후에 선배들이 교실로 찾아와서 응답자를 끌고 가려는 것을 응답자의 담임 선생님께서 발견하셔서 응답자와 선배들 모두 꾸지람을 듣고 이 싸움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D)-연하의 동급생상황에서 오는 파행적 케이스/ 탈북자로서 느끼는 소외감의 극한 정서/ 교우간의 물리적 폭력발생

응답자는 매우 꼼꼼한 성격이고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2살 정도 많기 때문에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잘 하려고 그래?’, ‘재수 없어’ 라는 반응이 나오곤 했다고 한다. 응답자는 마음에 드는 친구는 힘이 없어서 왕따 당할까 바 힘센 친구들에게 붙어서 있구, 애들이 너무 단순하고 철이 없는 애들도 많고. (탈북청소년 D)

note: 탈북청소년 D의 경우는 연하의 동급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상황이 유발한 극단적 부정적 사례이다. 학교내의 불량학생들에 의해서 탈북청소년의 ‘나이 많음’은 ‘늙은 3학년 새끼’로 불리울 만큼 극단적 형태로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러한 놀림은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피를 보는 상황까지 몰고갔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교내에서 탈북청소년과 다투었던 학생들간의 갈등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둘 다 6학년인데 북한에 있을 때 3학년 하다가 와서 지금 3학년 이에요.

애들이랑 우리하고 세 살차이 때문에 짜증나기도 해요. 그래서 5학년

친구들 하고 잘 놀아요. 저(I)는 6학년 올라가요.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왕따해도 6학년 보내 달라' 고했어요. 제 나이대로 보내 달라고 했어요( 탈북청소년, I, 여, 13세, 초등3년재학 )

3학년 아이들이랑은 어려도 같이 놀아야죠. 할 수없어요. 짜증나도.

근데 지들끼리 옆에애랑 쑥덕쑥덕대고 그러면 짜증나요.

4,5학년 올라가도 재네들끼리만 모여서 놀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가만있어요.

(I가 6학년으로 간다는 말에 대응하여) 저는요. 자원봉사 언니오빠들한테 배워서요 열심히 해서요. 빨리 6학년으로 갈거예요.같은 반아이들이 어려서도 ....(탈북청소년, J, 여, 13세, 초등3년재학)

note: 이러한 스트레스는 저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실제 연령대는 6학년에 해당하는데 동급생인 3학년 아이들과의 나이차이 때문에 '짜증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학급에 들보다 자기연령에 비슷한 고학년(5-6학년들)과 사귀을 하고 있다. 한편, 남한아이들은 그들대로 '나이많은' 탈북자 동급생을 배제하려는 경향도 업지 않은듯하다. 그래서 결국 이들과 이들의 학부모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을 못따라 가는 한이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제 나이에 맞는 학년선택을 희망하기도 한다.

oo이는 현재 자기에게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친구들이 모두 나를 싫어한다. 이제 여자애들이고 뭐고 때려 주겠다. 나는 바보, 병신이다.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란 표현을 한다. 이는 '자신은 중학교 2학년인데 6학년이랑 같이 다니면서도 6학년이 아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학습부진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와 친구관계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학

교에 올라가면 '1학년 짱이 되겠다'는 말을 한다. '공부도 못하고 하도 없으면 따가 된다'며 힘이라도 짱이 되겠다는 말을 한다. 지금도 반에서 자신이 힘이 있으니 자신에게 어찌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가정방문 기록서)

note: 이 경우 역시 나이차이가 나는 학급에 낮추어 진학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이다. 나이가 어린 남한학생들이 하는 학업수준에도 미달하는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감이 극도로 결여되고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신을 '나는 바보, 병신이다'라고 할 만큼 비하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신감 상실과 자기비하는 친구관계를 경직시키고 교사에게 반항하는등의 사회적 관계에 부적응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부정적인 대안을 추구하기도 한다. 즉 공부를 못하더라도 힘이라도 세면 '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힘을 길러 '여자애고 뭐고 모두 때려주겠다'는 것이다.

### 3. 남한 청소년 혹은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

고시 학원에 응답자와 또래가 없고,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아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고, 집 방향도 달라서...친구는 없다. 점심도 집에 와서 먹는다. 집에서 멀리 있는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더 잘 배우기 위해서라고. 학원 같은 반에는 아줌마들이 많다. 동네에는 학교에 다니니까 만날 새가 없다.(탈북청소년 B)

note: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아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고,”라는 표현은 다른 탈북청소년들도 종종 언급하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묘사인데 단순히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자신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차이를 본인 스스로 뚜렷히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경원시하면서도 선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서기에 장애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문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한 애들이 의리가 없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점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남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기도 했다. (탈북청소년 C)

note: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탈북청소년들의 나름대로의 특정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탈북청소년들만의 인식이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경험으로 판단하여 탈북자 성인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신의를 잘 저버리면 돈에 좌우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탈북 청소년들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4기 동기들인 2명의 탈북 청소년 친구가 있다고 한다. 이 친구들과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남한 친구들 중에는 이런 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애들하고는 추호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는데, 싸가지가 없고, 입만 살아서 기집애들 같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여자들 중에서 피는 모양새가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재수 없다고 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그리고 나쁜 목표를 좋은 쪽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애들이 있다. (탈북청소년 E)--탈북청소년들과 친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임.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싸가지 없고, 입만살았다, 기집애같고, 의리가 없다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note: 다소 지나친 편견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이 탈북청소년 E는 남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친구할 대상이 못 된다고 말한다.

응답자가 현재 친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대학생들이지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요즘 세대의 한국 애들은 밥맛이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E)

note: 이경우는 탈북청소년 E가 16세로서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인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려 하든지 아니면 검정고시학원이라고 하는 학습의 장에서 연상의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가 자신의 친구대상의 연령을 자의적으로 높혀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탈북청소년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친분이 많은 편이어서 그것을 두고 표현한 것일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거부감 및 반감(“밥맛이다”)은 응답자의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유추하게 만든다.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은 “자기일밖에는 모른다” ”경쟁적이다” “남일에 신경안쓴다” “끝없이 올라가려만 한다”등이다.(탈북청소년 F)

남한아이들에 대한 인식: 남한아이들이 북한아이들보다 버릇이 없는 것 같다. 신발을 끄는 아이(여자)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주의를 주자 돌아서 가면서 문을 팡닫고 나가는 것 보고 매우 버릇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도 놀랐다. 나의 엉덩이도 쳤다. 북한하고는 많이 다르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했다. (탈북청소년 G)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청년들과 (주로 대학생) 어울리는데 남한젊은 이들은 나가서 노는 것이 틀린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롭게 떠돌고 잘 웃고, 술도 잘마시고 해서 의외란다. (탈북청소년 N)

note: 북한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문화적 속성을 남한보다 더 온전히 보존했다는 설명에 근거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이 여학생이 남한생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나 탈북청소년 N의 경우처럼 여학생들의 음주와 자유로운 언행에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아이들에 대해 처음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기적이다. 보먼요. 자기 친한친구만 주고 나머진 상관안해요. 제일 친한 친구. 다같이 하려면 그러든가 해야 하는데 자기만 혹은 제일 친한 친구만...(탈북청소년 H)

#### 4. 같은 탈북자 친구와의 관계

응답자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개최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원을 퇴소하고 응답자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시민연합에서 자원봉사자와 하나원 친구(탈북자 사회적응교육시설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탈북청소년 B, 18세, 여, 검정고시학원 재원)-자원봉사자와 탈북 청소년과의 사립/ 남한청소년과의 친교는 어려움

note: 학습을 위한 공간(학교, 학원등)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하나원 시절의 동기 탈북청소년이나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만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탈북 청소년들과 연락을 하고는 지내지만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함. 다른 탈북 청소년이 중국어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에 놀라워함.(탈북청소년 C, 남, 19세 고등학교 1년재학)

note: 탈북자 청소년들을 자주 접촉하지 않는 사례임.

지금 4기 동기들인 2명의 탈북 청소년 친구가 있다고 한다. 이 친구들과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남한 친구들 중에는 이런 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탈북청소년 E, 16세, 남, 점정고시학원 재원)

note: 탈북청소년들과 관계형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대조. 이를 해석해보면 탈북청소년 E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하나원'을 같이 생활한 동기들이다. 그러므로 하나원을 나오지 않은 청소년들과 사귄 기회나 정서적 유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도 이해된다.

## 5. 청소년 하위(놀이)문화와 적응경험

A : 예. 근데...개네 공부도 잘하고요...노는데서는 제가 개네들 만큼 못논다기 보다는 놀기가 싫어요.

R : 왜?

A : 이상하게...아직 성인이 안됐는데...성인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개네 들은 만화책 보다가 선생님한테 막 들키고 그래요. 공부는 잘하지만, 수업시간에 만화책만 보고 그러거든요. 만화방에 가서도 저보고 막 만화책만 보라구 그래요. 언니 왜 만화책 안보냐구? 나 만화책 별로 즐기지 않는다구. 개네들이 오락 못하는거 알거든요...개네들이 오직 채팅

밖에 못하는거 알거든요..그래가지고 아...언니 되게 이상하다구...어떻게 오락도 안 즐기고, 대부분 애들이 즐기는데 오락에 만화밖에 없잖아요. 개 여자는요 ...개 12살짜리...개는 공부하면서 5교시동안 필기할꺼 다 하면서 만화책 7, 8권씩 봐요. 장난 아니죠. 책을 되게 빨리 본다니깐요.

R :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A : 예. 개가 책을 많이 봐여.

R : 음,...그럼 그 17살짜리는 그러면? 개도 노트필기 하면서 만화책 보든?

A : 예. 근데요. 그 12살짜리 애만큼 못봐요. 많이 봐서 3, 4권.(탈북 청소년 A)

note: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원에 다니는 1차적인 목표가 학업이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잘 만나는 친구들의 놀이문화가 내담자와 차이가 있어 이들과의 어울림에 약간의 괴리감을 감지할 수 있었음.

남한 청소년들이 너무 만화와 오락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음. 이것은 탈북청소년들이 학습과정 이외의 놀이문화(혹은 청소년 문화)에서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일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 : 맞아...애들이 연예인 얘기 많이 하지...

A : 맞아요...그 얘기 아니면 만화 얘기...그때는 솔직히...개네들이...내가 거기 안끼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기 안끼는건데도...내가 혼자 느낌이 딱 왕따 당하는 느낌이...아무리 평상시에 말 잘하고 어찌고 저찌고 해도 그렇거든요...

R : 그래...다 같이 아는 애인데...나만 모르니깐...

A : 예..예...자연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그렇구요...그렇다구 그쪽으로 계속 빠지라고 하는건 아니구요...어느 정도 공부에서 실력을 쌓아놓고.....그런 쪽으로....(탈북청소년 A)

note: 관심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주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는데 그 때문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음. 그러면서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실력을 쌓은뒤에 남한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가담하겠다는 기계적인 생각을 지님.

응답자가 게임이나 가요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이야기에 끼 수 없어지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기 하였지만 자존심이 상하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이나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D)-

note: 남한 청소년들의 관심있는 컴퓨터 게임과 가요에 별관심이 없어, 친구들과의 놀이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임. 그러한 놀이문화에의 부적응으로인한 친구들과의 괴리감은 탈북청소년을 내심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상황을 친구들에게 내색하거나 털어놓지는 못하고 있음.

응답자가 특별한 특기도 없어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없어서 다가오는 애들도 없어서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응답자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는 가요나 팝보다는 클래식을 더 좋아하고, 사색하고, 더욱이 친구들과 애기도 안통하고 해서 자신이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점심도 혼자서 먹게 되었다고 한다.

응답자가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대담자가 느끼기에 응답자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인상을 받아서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응답자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보다 조금 더 가식적인 모습으로 접근해보기도 했다고 한다. 가수를 좋아하는 척 하면서 ‘너 누구 좋아해?’ ‘난 클릭 B를 좋아해’ 거짓말이지만 애들이 반응이 ‘어 좀 달라졌네’라는 호의적인 반응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또 너무 예의바르게 대한다기 보다는 좀 편하게 대하니깐 전보다 애들 반응이 좋아졌다고 한다.(탈북청소년 D)

note: 공부뿐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은 이렇다할 장거나 특기가 없어서 또 한번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못 끌거나 소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함. 한편 이러한 특기없음과 관심사항이 다름으로 인한 소외를 극복하고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같은 놀이문화속에 소속되려는 욕구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 청소년의 의도적인 친교의 노력으로 마음에 없는 가식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줌. 그 결과 학급동료들로부터 반응(호의적인 반응)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게 됨.

R : 어....대단해. 팔리면 전화해...요즘 텔레비전 프로는 뭐 좋아해? 왜 텔레비 안봐?

A : 아니요...잘 봐요...공부 끝나고...남는 시간에 TV만 봐요...TV만 보고...요즘 채팅도 별로 안하고...(탈북청소년 A)

note: 친구가 별로 없거나 공유할 놀이문화속에 섞이지 못한 결과는 혼자지내는 시간이 늘어감으로 나타난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채팅등 친구들없이도 할 수 있는 놀이로 보내고

있다. .

“남한아이들이 춤 좋아하고 TV나오는 연예인들 관심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나?” “나도 좋아요. 좋지만 그런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아해요.” 노래같은 것도? 노래는 좋아해요. 춤이랑 좀 하고 싶기도 한데 공부해야 해요. (탈북청소년 G)

note: 특별한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라기 보다는 막연히 공부해야 하는 것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또 인터뷰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 6. 사회적 연결망 (social network)의 부족과 관계형성대상으로서의 교회

하루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운 편임. 아직 남한사회거주 2개월이 되지 않은 케이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먹고 집청소하고 OOO 해수욕장에 운동하러 나감. 바닷가에서 혼자서 볼차다가 바닷가 구경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오후 5시나 6시쯤 집에 돌아옴. 저녁식사하고 TV보다가 잔다. 가끔 OO백화점이나 인근 관광지에 간다.(탈북청소년 F, 단독거주, 남, 20세)

note: 사회적 관계형성의 연결망이 매우 부족함. 특히 단독입국 탈북 청소년의 경우, 초기에는 만날 사람이나 찾아갈 곳이 매우 적음. F의 경우 하루종일 혼자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도수가 약 30명정도 밖에 안되는 세운지 열

마 안되는 개척교회이다. 중국에서 자신을 도와준 목사님이 소개해준 교회이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청년회나 학생회가 따로 없고 자기또래의 청소년이 없어 어울릴 마땅한 사람이 없다. 교회에 자주가지만 교회에서도 주로 TV를 보거나 목사님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오다 정도이다. (탈북청소년 F)

note: 교회는 많은 경우 정착초기에 사회적 관계형성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신앙을 이유로 교회를 찾기보다는 중국동지에서 알던 선교사의 주선으로 국내에서 교회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 연결로 하나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교회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이 무어나고 물었더니만 별로 아쉬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대체로 외롭고 적적한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F에게는 특별한 남한친구가 없고 접촉하는 민간기관이라고는 교회말고는 없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부산에 10여명 있는데 그들이 가끔 전화통화하고 만나는 정도이다. (탈북청소년 F)

남한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청년들과 (주로 대학생) 어울리는데 남한젊은 이들은 나가서 노는 것이 틀린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롭게 떠돌고 잘 웃고, 술도 잘마시고 해서 의외란다. (탈북청소년 N)

응답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집은 인천이지만 교회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곳에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라고 했다.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물론 청년부에 매우 친한 누나가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의 일이나 친구들과의 일을 상의할 수 있지만 아주 깊은 얘기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하였다.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워낙 바쁘셔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탈북청소년 C)

note: 교회가 탈북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한 장이나 또래 집단외의 주요한 사회제도 및 문화적응에 하나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낯선 종교문화에 그리 어렵지 않게 밀착될 수 있는 것은 종교를 통한 사회적응이 하나의 중요한 적응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7. 사회적관계 형성을 어렵게하는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

일단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고생각해야 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관계형성자체가 어렵다. 중국에서도 잘 안되었다고 보며 북한청소년끼리도 관계형성이 어렵다. 이유로는 첫째,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많은데 이지역은 북한에서도 행정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이 제일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곳사람들의 기질이 원래 사회적 rule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존의 개념이 강하고 ‘너하고 나사이에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직접적 해결방안을 중요시하지 법규준수나 사회성이 약하다. 주로 미시적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체제적인 것은 필요없다는 식. 탈북 청소년들도 부모들로부터의 사회화나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향비슷. 한국에 와서도 사회성이 약함. 자기를 드러내는 openness가 매우 어렵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부모에도 숨기고 잘 말을 안한다. 둘째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주변에서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공안에 항상 쫓기어서 자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적음. 그래서 터놓은 아이들에게만 전화번호 알

려줌. 남한청소년들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재네들과 나는 친구가 될 수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음.(불특정 탈북 청소년)

## <사회적 관계형성(가족관계)에 대한 경험의 해석>

### 1. 부모와의 관계

R : 어머니가 조리 있게 잘 하시나부지...최근에 엄마랑 싸운 적은 없었구...

A : 저요...안싸워요. 힘들게 엄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제가 엄마랑 왜 싸우겠어요.

R : 그래도...왜 안맞는거 있잖아.

A : 아니요...전...그래도 엄마가 하라는건 뭐든지 다해요. 이 나이가 됐지만...(탈북청소년 A)

note: 부모가 ‘힘들게’ 자신을 남한에 데려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능한 갈등과 반항의 가능성에 영향(주로 부모와의 갈등을 낮추는 방향으로)을 미칠 수 있음을 보게 한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과의 불화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은 대담자에 대한 반향으로 해석된다. 응답자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나 본인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이야기들은 거의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탈북자청소년 B)-

note: 부모와 불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나 사실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이 이미지손상을 우려하거나 개인적 사정이야기를 회피하기 위한 왜곡된 답변일 수 있다.

아버지만 직업이 있고, 어머니께서는 학원에 다니시고 계신 상태. 2학기 때는 어머님도 취직할 계획이라고 함. 부모님께서 응답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기도 하지만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로, 부모님께서서는 응답자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방과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시시콜콜히 대답하지 않아 부모님이 서운해 하신다고 하셨다. 더욱이 친구들과 함께 무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이러한 이야기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까 염려하는 듯 하며 동시에 귀찮아하고 있어 보였다.(탈북자청소년 C)

note: 물론 이것이 청소년기 부모님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인터뷰에 응한 다른 탈북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맹목적으로 순종적이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응답자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부모님께 꾸지람 받은 일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부모님께서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여러 차례 꾸중을 하였으나 옷으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응답자는 실제 응답시 병거지 모자에 철부 통 반바지, 험령한 면 T-셔츠를 입고 있었다. 남한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힙합 스타일이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이러한 의복 착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탈북자청소년 C)

note: 이 경우는 탈북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는 남한의 의복과 같은 문화에 더 민감하고 빨리 적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응답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 부모님은 중등검정고시를 붙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응답자는 한국 애들이 너무 싫어서 학교에 가기 싫어서 대검을 보고 싶어한다. 응답자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계속 시도 중인 듯 했다. 최근에 부모님께 꾸중들었던 내용은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미친놈이라고 욕하셨다' 그리고 전에는 '공부공부' 했는데 요즘은 밤도 세고 그러니깐 굉장히 좋아해요라고 한다. (탈북자청소년 E)--탈북청소년의 정체감 혼란(대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애들이 너무 싫다고 생각하는 )/ 일상적 과정의 생략을 요구하는 성급한 성장욕구/ 자신의 미비점을 심각히 생각치 않음.

note: 이 경우는 부모가 탈북청소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애들이 너무 싫어서 학교에 가기 싫고 그래서 대검을 봐야 하겠다는 응답자의 생각은 실제로 한국애들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등학교학생과 어울리는 '어린티'는 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비친다. 그래서 빨리 대학생이 되겠다는 것인데 현재 16세이면 이러한 생각은 정체감의 혼동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과의 성급한 동일시는 학습의 준비과정 뿐 아니라 당사자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긍정적이지 않게 보여진다.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별로 없다. 누나 3명과 다투는일도 별로 없다. 자기일이 모두 바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논다 (특별한 일자리가 아직 없는 듯)고 함.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 보다 버릇이 나빠졌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 부모님말씀에 '남한아이들 하는 짓 많이 따라 한다' 고 하신다.(탈북청소년 G)

note: 탈북자 가족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남한의 아이들이 가진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따라가는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뭐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탈북 청소년 G)

note: 공부를 잘해서 부모들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탈북청소년의 생각들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 비해 지금은 부모님은 힘드시나? :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다르니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탈북청소년 H)

제가 자원봉사하는 아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탈출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하루종일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늘상 아이를 옥박지르고 무시한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인데, 저에게 항상 아이의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왔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더군요. 그렇게 불량한 학생이 아닌데도... ) 어머니는 아이 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에 무서우니까 종종 같이 야단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것 같구요. 어머니에게는 종종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K, 여, 중학재학, 13세)

또한 부모님의 이혼, 아빠의 재혼, 엄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지께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짐작됩니다.(탈북청소년 L)

note: 입국후 탈북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탈북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본다. 특히 가족이 해체된 이 경우에 아이들의 사회적응에 큰 장애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사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OO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못마땅해하시고 그것을 OO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OO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탈북청소년 M)

부모에 대한 순종의 강박관념이 존재한다--“목숨을 걸고 나를 데려오셨다“ 라는.

1년 미만의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의 문화에 노출후 급격한 변화경험, 외모의 지창, 진로문제등 부모와의 상의차원에서 해결이 안됨. 이들은 학교, 밖의 일을 집에서 이야기 잘 안한다. 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더욱 심함. 학교외의 학습의 장, 학원등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통제가 특히 약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뚜렷한 반응은 없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직 잠재적인 것 같다. 표출되지 않은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불특정 탈북청소년)

이렇듯 이북에서 온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생각은 이곳 부모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차이점은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존여비의 사상도 짙다. 이런 점은 송XX 씨에게 특히 잘 나타난다. (자원봉사자 사례기록서 6)

첫 방문은 역시 예상대로 쉽진 않았다. 그 집은 3남매였고 어머니가 없었다. 첫 째는 남자 아이(A)로 고등 학생이고 나머지 두 자매는 중학생(b), 초등학생(c)이었다. 두 자매는 처음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다. 하지만 A는 왜 그런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했다. 그런 모습을 곱게 볼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송xx 씨는 가볍게 타이르며 태도를 고쳐보려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아이를 보는 이도 무안할 정도로 구타를 했다. 그런 장면을 본 내 마음도 편할 리 없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잠잠해 지고 서로 인사를 했지만 역시 어색한 분위기는 수습이 안 되었다. (자원봉사자 사례기록서 6)

##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의 해석>

R : 뭐...너랑 연배가 비슷비슷해? 나이가 비슷해?

A : 저보다 어려요. 17살, 12살. 3명이 제일 친해요. 키가 작은애가 제일 키 크구요, 그답에 작은애가 저보다 더 크구요, 제가 쥔 작아요.

R : 우유좀 먹어 우유좀.

A : 요즘...우유 먹기로 결심했어요.

R : 먹으면 아직 클 나이라서 금방 클 꺼야. (탈북청소년 A)-

note: 신체적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의 극복이 필요함.

A ; 아니요 동생보다도 저희 아빠가...언젠가는 보겠지....지금도 애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면...그쪽으로 끌려요..

R :그런데...너가 하나원 안가도...너한테 연락해주잖아. 동생왔다구...

A : 동생이 어떻게 알아요...제가 여기에 있는지...

R : 음...너 여기있는지 동생이 모르는거야...음...그래서 하나원 더 가고 싶고 땡기고 그러는거야?(탈북청소년 A)

note: 헤어진 가족원(중국에 있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엿보임.

부모님과 다른 문제는 없으나 부모님께서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즉, 응답자가 공부를 잘 해야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취직을 잘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고,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응답자가 느끼는 책임감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하였다. 성공하여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부담이 느껴지는 동시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탈북청소년 C)- 성공적 삶에 대한 부담

note: 성공적 삶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요구로 인한 부담.

성취와 새로운 삶(남한친구와의 사귄)에 대한 흥미가 양립하는데서 갈등

응답자가 순간적인 분노를 자주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이 느껴졌다.(탈북청소년 E)--분노, 정서적 불안정, 심한 스트레스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이 무어나고 물었더니만 별로 아쉬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대체로 외롭고 적적인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F)

현재 부모님은 원산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이 보고싶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신이 남한에 온걸 모르고 계시고 탈북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라고 한다. (F)

지난주에는 왜 학교를 못갔지?: 그냥 좀.. 그렇게만 말할수 있어요. 머리가 좀 아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적 있나? : 아뇨, 지난번에는 그런 적은 없구요. 제가 사춘기... 첫 번째 사춘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하나 사춘기 세 번은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두 번더 학교를 못가겠네? 한번은 겨우 넘겼는데 아마 그거와 관계되어 그런거 같아요.(탈북청소년 H)

또한 남한 사회에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부모님의 이혼, 탈북자라는 주변의 시선, 북에서의 나름대로의 추억 등)이 더 많다고 여깁니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동이 바깥출입을 잘 하지 않고 방에만 있는 날이 많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남매의 공통사항은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메스컴에 의해서건, 우연에 의해서건, 실수로 인해서건)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꺼려했으며(모든 탈북 아동들의 공통사안인지도...)굉장히 예민했습니다. (탈북청소년 L)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것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과 자기비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M)

## Appendix II : 탈북자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의 전화 면접 기록서

### 전화면접기록서 1.

1. 자원봉사자의 나이는? 26세

2. 자원봉사자의 성별? 女

3. 당신은 대학생/대학원생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  
학원생

4.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자원봉사대상이 여러명  
이었다면 가장 심각한 적응어려움을 보였던 탈북청소년의 경우)

女, 13세

5. 탈북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족관계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부모(형제 없음)

6. 탈북청소년(혹은 청소년의 가족)이 제 3국 체류시 특별한 경험 (주  
로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  
다.

중국에 체류,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심

7. 탈북청소년은 현재 (혹은 자원봉사할 때) 어디에 다니고 있었나요?  
학교? 학원(검정고시 or 일반학원 or 기술학원)? 기술훈련원등

중학교 재학중

8. 자원봉사자가 만났던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 어떤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부적응현상  
을 유형화하려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아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지 않

나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탈출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하루종일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늘상 아이를 옥박지르고 무시한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자원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인데, 저에게 항상 아이의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왔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더군요. 그렇게 불량한 학생이 아닌데도... ) 어머니는 아이 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에 무서우니까 종종 같이 야단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것 같구요. 어머니에게는 종종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다지 취미도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너 바보 아니냐?”라고 한다고 하구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친구들은 몇 명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별로 마음을 터놓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 자체는 얌전하고 착한 편이지만, 속으로 웅어리진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화면접기록서 2.

1. 자원봉사자의 나이는? 24세
2. 자원봉사자의 성별? 여
3. 당신은 대학생/대학원생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원생
4.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자원봉사대상이 여러명이었다면 가장 심각한 적응어려움을 보였던 탈북청소년의 경우) 여: 12,

남 : 10

5. 탈북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족관계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경기도 안양시 산본동                      엄마, 두 남매 (아버지도 함께 탈북하였으나 후에 어머니와 이혼후 재혼)

6. 탈북청소년(혹은 청소년의 가족)이 제 3국 체류시 특별한 경험 (주로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했다는 것, 중국에서 어린사촌들과 함께 어린 두 남매가 어른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름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7. 탈북청소년은 현재 (혹은 자원봉사할 때) 어디에 다니고 있었나요?  
학교? 학원(검정고시 or 일반학원 or 기술학원)? 기술훈련원등  
아직 초등학교 재학 중일겁니다.

8. 자원봉사자가 만났던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부적응현상을 유형화하려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의 적응 (친구관계, 선생님과 관계, 학습능력, 숙제해결 및 완료)

-사회생활의 적응(남한청소년문화에 대한 반응, 적응속도, 일반성인문

화에 대한 태도, 법규나 규칙에 대한 적응,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적응, 소비행태의 부적절함등)

-가족간의 관계(부모에 반항, 부모와 갈등, 부모의 방임, 형제자매끼리의 갈등, 다른가족원과 친척간의 관계, 남한에 함께 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등)

-심리적 부분 (우울, 불안, 긴장, 정체감 상실, 정체감 혼동, 대인접촉에 자신이 없음, 자신감 상실, 열등감, 특별한 부정적 trauma, 대인기피증, 정신장애)

-비행이나 범죄경험 (심한 흡연, 심한음주, 폭행, 기타 비행등의 경험)

이상과 같이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경험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행태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아동 ; 본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력이 매우 뛰어나 친구도 많고 비교적 남한 사회를 빨리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동의 성격은 활발하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집중력이 다소 떨어지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드리지 않고 자기 독단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하게 꾸짖을 경우에는 금방 상처를 받고 오래가는 편? 잘 빠졌지요.

그리고 사회적 관습, 예를 들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는 조용히 해야한다. 어른이 수저를 드신 후 식사를 한다. 등의 예절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회적인 규칙을 잘 따르려하지 않았다고 해야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을 것이며 가없이 여기고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한 친구들도 기본적인 예절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예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탈북아동들이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중한 충고, 정중한 거절이란 있을 수 없는지... 무조건 충고나 거절은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면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이 가정에도 뿌리깊게 박혀있었기에 누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주로 아들 위주로 생각하셨으며 지나치게 추켜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 우리 \*\*이는 공부 안해도 워낙 머리가 좋아서 한 번 가르쳐주면 척척알아요. 그런데 우리 \*\*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썩 좋질 않아요. - 남자아동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무조건 잘한다는 칭찬에 자칫 거만해질 수 있으며 자기 우월감에 빠질 우려가 있음. 여자아동같은 경우엔 자신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어머니에 의해, 자신감이나 의욕이 많이 실추되어 자기비하를 하기 쉬움.)

여자 아동 : 여자 아동은 남동생과는 반대로 매우 온순하며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를 잘 표출하지 않으며 속으로 삭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부모님의 이혼, 탈북자라는 주변의 시선, 북에서의 나름대로의 추억 등)이 더 많다고 여겼습니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동이 바깥출입을 잘 하지 않고 방에만 있는 날이 많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했습니다. 아동은 동생에 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나 나름대로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는 의기소침해지기 쉬웠고 금방 포기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장래에 무엇을 해야할 것이며, 학력사회에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이 나이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에 의하면, 아동이 몸이 자꾸 불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붓는 것이라 했다

합니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본 아동이 북에 있을 때는 꽤나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통했다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썩 좋지 않고 학력사회라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더군요. 대학에 대한 부담감... 원래 중학교 때는 공부 잘 했던 학생이 너무 공부잘하는 고등학교 가면 의기소침해져서 공부하지 않거나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과 비슷한거 같아요.

위에서 말한 두 남매의 공통사항은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매스컴에 의해서건, 우연에 의해서건, 실수로 인해서건)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꺼려했으며(모든 탈북 아동들의 공통사안인지도...)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아빠의 재혼, 엄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지께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우리는 아동들을 접할 때 그들의 심리적 요소를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겉으로 보기엔 사회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면에서는 어른들 못잖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학습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도리,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 번의 가정방문보다 열 번의 전화통화가 그들에게겐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걸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빨리 느끼겠지요.)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칫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여자아동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탈북아동이라고 해서 다른 아동들과 차별성을 두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셔서

본 아동이 탈북한지 모르는 반 친구들이 시기하거나 선생님과 무슨관계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진정 이것이 옳은 걸까요? 선생님은 이 친구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신 건지도 모르지요.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셨을지도... 하지만 우리 친구는 그것이 하나도 고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보다는 평범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제 생각인데... 매스컴이든 자원봉사 선생님이든 부모님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본인들이 그것을 꺼려한다면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동이 맘의 문을 열고 진정 원할 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존중!!!

다만 그 전에 매스컴이든 자원봉사 선생님 지원이든 그것의 장점이니 필요성을 수차례 알려준다면 미리 선생님과 만남을 2-3회 정도 갖게 한 후 선생님이 아닌 아동에게 선택권을 줘야하는 절차가 밝아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 전화면접 기록서 3.

1. 자원봉사자의 나이는? 22세
2. 자원봉사자의 성별? 여
3. 당신은 대학생/대학원생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생
4.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자원봉사대상이 여러명이었다면 가장 심각한 적응어려움을 보였던 탈북청소년의 경우)  
여 15세
5. 탈북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족관계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버지와 거주

6. 탈북청소년(혹은 청소년의 가족)이 제 3국 체류시 특별한 경험 (주로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한국으로 오시고 혼자 조선족 가정에서 체류하면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였으며 그 집의 아이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북한에서 왔다고 놀렸다고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7. 탈북청소년은 현재 (혹은 자원봉사할 때) 어디에 다니고 있었나요? 학교? 학원(검정고시 or 일반학원 or 기술학원)? 기술훈련원등

중학교

8. 자원봉사자가 만났던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부적응현상을 유형화하려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식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무척 싫어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담임선생님이 OO이가 전학을 간 다음날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 친구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서 전학을 온 이후로는 더욱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고 남자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사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OO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못마땅해하시고 그것을 OO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OO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것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과 자기비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전화면접기록서 4.

현재 21세의 탈북자 청소년으로서 남자이며 남한에는 가족이 없이 단독입국했다. 현재 양천구에서 남한에 원래 살던 고모와 고모부집에서 동거하고 있다. 한국에 오기전 6개월동안 중국에 체류했었고 그때 일주일 동안 굶어서 죽을뻔 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북한생활과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리움이나 향수, 애착감같은 것이 없는듯하다. 현재 교회에서 야학을 하면서 전과목을 배우며 독학하고있는데 원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 탈북자 대학생은 원래 인성자체가 강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적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은 듯. 그래서 시간을 아껴쓰는 것,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시간조절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은 탈북자 이기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꼭 남한의 백수나 게으른사람의 시간관념같다고 함.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의외로 핏줄을 많이 찾는다.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모네를 찾아 같이살긴 하지만 간혹 관련 친척들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약간의 마찰도 경험했는데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돈관리를 잘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남한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청년들과 (주로 대학생) 어울리는데 남한젊은 이들은 나가서 노는 것이 틀린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롭게 떠돌고 잘 웃고, 술도 잘마시고 해서 의외란다.

기본적 학습능력이 매우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생각하기로 이 사람 바보아닌가 할 정도로.

공부내용과 앞으로의 학업계획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함.

## 전화면접기록서 5.(다양한 자원봉사 경험을 가진 대학원생의 청소년탈북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일단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어라. 탈북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관계형성자체가 어렵다. 중국에서도 잘 안되었다고 보며 북한청소년끼리도 관계형성이 어렵다. 이유로는 첫째,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많은데 이지역은 북한에서도 행정 정치, 문화적인 영향력이 제일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곳사람들의 기질이 원래 사회적 rule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존의 개념이 강하고 '너하고 나사이에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직접적 해결방안을 중요시하지 법규준수나 사회성이 약하다. 주로 미시적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체제적인 것은 필요없다는 식. 탈북 청소년들도 부모들로부터의 사회화나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향비슷. 한국에 와서도 사회성이 약함. 자기를 드러내는 openness가 매우 어렵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부모에도 숨기고 잘 말을 안한다. 둘째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주변에서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공간에 항상 쫓기어서 자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적음. 그래서 터놓은 아이들에게만 전화번호 알려줌. 남한청소년들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재네들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음.

이들은 한편 희생양인데, 국가,지역사회, 학교등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래 관계형성에 있어서 이분법적 논리가 팽배해서 관계형성이 더욱 힘들다. (청소년들 고유의 경향인 이분법, 흑백구분 때문에 탈북자-남한학생등의 구분으로 )

부모의 남한입국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투자와 지도에 적절한 능력이 없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강박관념이 존재한다--“목숨을 걸고 나를 데려 오셨다“ 라는.

1년 미만의 아이들--남한의 문화에 노출후 급격한 변화경험. 외모의 지창, 진로문제등 부모와의 상의차원에서 해결이 안됨. 이들은 학교, 밖의 일을 집에서 이야기 잘 안한다. 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더욱 심함.

학교외의 학습의 장, 학원등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통제가 특히 약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뚜렷한 반응은 없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직 잠재적인 것 같다. 표출되지 않은 단계.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에게로 서든지 자신이 그렇게 믿든지 간에 매우 강하고 대학을 진학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사례기록서 6 (전화면접 대신 자신의 경험을 서술 해주었다.)

처음 송XX씨 댁을 방문할 때 두려움이 나에게 가장 큰 장애였다. 탈북자라는 이름도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내 경험 중에서도 가장 새로웠으면서도 가장 긴장하게 하는 일이었다. 시간도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는 것도 나에게 그리 쉽게 다가서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튼 처음 방문은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다. 첫 방문은 역시 예상대로 쉽진 않았다. 그 집은 3남매였고 어머니가 없었다. 첫 째는 남자 아이(A)로 고등 학생이고 나머지 두 자매는 중학생(b), 초등학교생(c)이었다. 두 자매는 처음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다. 하지만 A는 왜 그런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했다. 그런 모습을 곱게 볼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송xx 씨는 가볍게 타이르며 태도를 고쳐보려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아이를 보는 이도 무안할 정도로 구타를 했다. 그런 장면을 본 내 마음도 편할 리 없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잠잠해 지고 서로 인사를 했지만 역시 어색한 분위기는 수습이 안 되었다. 이런 행동을 보인 A의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생들도 도움이 필요 없고 그런데도 동생들은 아무말 못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화가 난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빈민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나도 미웠고 도움을 부탁한 아버지에게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론은 위의 상황을 보다 못한 내가 아버지의 구타를 말리고 나서 울고 있는 A와 단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말이 대화지 거의 식식대면서 마지못해 답하는 식이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 A완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서로 인사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의 위치가 어정쩡하여 아이들의 양육에 신경쓸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도 안 계셔서 집안은 엉망이었다. 그런 일을 둘 짝인 b가 한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로서는 한계가 아닐 수 없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답답하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안정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 일단 아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는 다행히 다소 외향적인 편이어서 공부는 좀 뒤쳐지지만 교우관계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둘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 보내는 경우가 계속 되고 있다. 송XX 씨는 이곳 아버지와 달라서 아들을 자상하게 대하면서 관찰하기 보다는 사내 늑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 그에 따라 A는 생활이 너무 나태함마저 들었다. 컴퓨터를 하며 밤을 샌 다던지 아니면 TV를 보면서도 그런다. 이런 것은 이곳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보통의 아버지는 자상하진 않을 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항상 부모님의 제약을 받아 어느 정도 선에

선 고치려고 한다. 하지만 A는 자신이 그만 두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이 가정의 상황은 다른 탈북자 가정과 많은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송XX 씨는 이북에 있을 때의 상황과 똑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고 다른 탈북자의 집은 이북에선 송XX 씨와 똑 같았어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특히 자식들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송XX 씨의 경우는 이북에서 군인이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후자와 같은 집처럼 자식을 향한 집착적인 교육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듯 이북에서 온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생각은 이곳 부모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차이점은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존여비의 사상도 짙다. 이런 점은 송XX 씨에게 특히 잘 나타난다. 그래서 아들만 위하는 것 같은 아버지를 막내인 c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현실은 이북과 다르기 때문에 남한의 아버지 상을 보며 지금도 살고 있는 아이들과 아버지는 쉽게 안정을 갖기가 힘들다. 게다가 직장이 없어 아버지도 자신감을 잃어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서로의 앙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묶을 수 있는 가족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끔 A의 반응이다. A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관심이 자신이 보기에 부족했던 모양이다. 두 딸의 졸업식도 불참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나 보다. c의 경우도 그렇다. 요즘 b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c에겐 아주 불만이다. 자신이 보기에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안가니 점점 아버지는 그냥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버리고 있다.

다음은 학습 능력을 말하고 싶다. b는 이북에서도 교육을 잘 받고 왔던 아이여서 내가 교육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A와 A는 지도하기 아주 힘든 상대다. 특히 c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어서 항상 약을 먹어야 하고 또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 건강이 좋을 리 없었다. 따라서 공부를 하면 쉽게 지쳐버리고 집중을 못한다. 아마 이런 현상은 간질

이라는 병을 가지질 않았더라도 어린 탈북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허약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집착은 강해서 하긴 하지만 돌아오는 자신의 성적을 보면 한 숨만 나온다. 자신도 항상 이것이 걱정이다. A의 경우는 이곳에 와서 공부라는 것을 아주 잊어버리듯 한 것 같다. 현재 공고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3년을 방문하면서 한 번도 공부를 시켜 본 적이 없다. 이유인 즉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 초에 고3이 된 자신의 모습에 걱정이 되는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에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도 민망한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자기 또래의 탈북아이들이 쉽게 소위 명문대라는 곳에 떡 하고 들어가고 또한 들어간다고 하니 자신도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한 달 간의 설득으로 현재는 대학을 포기하고 기술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 다행히 말을 잘 알아들어 지금은 기술 학교로 간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공부는 시작하고 있다. 결론은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보기에다 무모한 대학의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상황은 방문을 하면서 송XX 씨 가정의 이야기고 다음은 방문을 하면서의 내 어려움을 나열해 보겠다. 먼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 앞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의 조언도 없이 혼자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쳐나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튼 나로서는 사막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어서 처음엔 상당한 고민을 감수해야 했다. 다음으론 방문 거리다. 이것은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왕복 4시간의 거리에 교육시간 2시간으로 만나절을 소요하는 것은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후배들은 이런 점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들의 태도다. 난 다행히 송XX 씨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 교육을

하러 가면 도저히 학습할 분위기가 안 된다. 남자인 나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이 방문을 하면 오죽하겠는가?. 또한 덧붙이면 밥 먹는 것도 그렇다. 어머니가 없어서 당연하긴 하지만 어떨 땐 심할 정도다. 난 그래서 일부러 밥 시간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같이 밥을 해 먹고 있는데 만약 나라도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떡볶이나 라면으로 넘길 판이다. 일 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지만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화가 난다. 대체 가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아마 지금까지 아무리 나열했어도 가장 어려운 점은 부담감일 것이다. 과외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 두면 되지만 명색이 도와주겠다고 와 놓고 금방 그만 둔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울 수도 있다. 나도 이런 마음을 안 가졌을 리 없다. 아마 이것은 자원 봉사를 하는 누구나 느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므로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다. 한 반 년이 지나니 이 시간은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갔다. 점점 무의식적으로 자기 집에 가는 것처럼 바뀌게 되었다. 당연히 이 가족과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 봉사라는 의미가 날 무색하게 할 뿐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신의 성취감일 것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 무표정한 아이들, 지저분한 방안, 이런 것들은 처음 날 무참하게도 좌절하게 했다. 또한 이런 저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밉기도 했다. 게다가 내 말 중에 가끔 나오는 외래어와 속어는 아이들에게 당혹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초창기의 내 자신은 이 아이들의 태도가 가장 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한다.

### Appendix III : 중간보고서 이후 추가된 탈북청소년 면담기록서

탈북청소년 F(20세 남 남한사회거주 2개월째)

2001년에 독신입국하여 2001년 10월 10일 거주지 배정된 20세의 청소년으로 지방거주함.

하루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운 편임. 아직 남한사회거주 2개월이 되지 않은 케이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먹고 집청소하고 000 해수욕장에 운동하러 나감. 바닷가에서 혼자서 볼차다가 바닷가 구경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오후 5시나 6시쯤 집에 돌아옴. 저녁식사하고 TV보다가 잔다. 가끔 00백화점이나 인근 관광지에 간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도수가 약 30명정도 밖에 안되는 세운지 얼마 안되는 개척교회이다. 중국에서 자신을 도와준 목사님이 소개해준 교회이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청년회나 학생회가 따로 없고 자기또래의 청소년이 없어 어울릴 마땅한 사람이 없다. 교회에 자주가지만 교회에서도 주로 TV를 보거나 목사님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오다 정도이다.

그동안 서울에 한번 가서 아는 탈북자들을 만난것과 제주도에 놀러간 것이 가장 재미있던 일이었던 것 같다. 제주도에는 사촌이 살고 있는데 그 사촌과 함께 탈북하였다. 고향이 원산인데 둘이 “중국에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투합하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출“을 했다. 그래서 함경북도 온산지역으로 탈출하여 중국에 와서 약 3년을 머물렀다고 한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촌은 현재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것에 취업하여 한달에 7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 일을 하기위해서 오토바이면허도 땀단다.

그리고 그 일이 재미있다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려 한단다. 저자가 아르바이트해서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니깐 그 사촌이야기를 하면서 70만원정도를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완전 취업이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청소년 F는 경제적인 이유로 빨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한다. 그냥 돈 까먹고 앉아 있으면 안될 것아니냐라고 반문한다.

담당형사는 하루나 이틀에 한번정도 전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주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한다.

일주일의 지출은 약 2만원정도라고 한다. 다른 지방에 가는일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정착금은 형사가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다.

진학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검정고시같은 것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하다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고3으로진학하는 것도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가 고 3으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학업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고 3은 입시전쟁돌입시기이므로 교사들이나 교우들이 자신에 대한 배려나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려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으로 다시 가라고 했다. 매우 싫은 눈치이다. 북한에서 온 같은 또래에게 연령아래의 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를 좀 들은 눈치다.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이 무어나고 물었더니만 별로 아쉬운 것은 없다

고 하지만, 대체로 외롭고 적적한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동철에게는 특별한 남한친구가 없고 접촉하는 민간기관이라고는 교회 말고는 없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부산에 10여명 있는데 그들이 가끔 전화통화하고 만나는 정도이다.

동철이 가지는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은 “자기일밖에는 모른다” “경쟁적이다” “남일에 신경안쓴다” “끝없이 올라가려만 한다” 등이다.

현재 부모님은 원산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이 보고싶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신이 남한에 온걸 모르고 계시고 탈북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라고 한다.

#### 탈북청소년 G (15세 남, 초등학교 6학년)

서울에 살고 있는 초등6학년의 15세 청소년이다. 외모는 중학생 1-2학년 정도의 체격을 지녔다. 학교과목중에서는 사회가 재미있고 영어, 수학이 어렵다고 한다. 남한아이들이 100을 한다면 자신이 얼마정도인가의 물음에 한 60%정도 따라간다고 말한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가의 질문에 “약간 두렵웠다. 낯설어서”라고 한다. 학교 친구들은 현재 15명정도인데 이중 대부분 친한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라고 할 만큼 여자친구가 많다. 가끔 친구들과리 노래방에가서 노래도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생일같은 날 모여서 함께 논다고 함.

자신은 반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남학생

들이 자기를 놀리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아직 자신이 북한에서 온 건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친구와의 싸우거나 다툼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한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골탕먹이며 먼저 때렸다. 그래서 싸웠는데 결과는 자신이 이겼다. 그래서 짱이 되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그 아이가 짱이었다고 한다. 반아이들에게 중국에서 왔다고 했다고 한다. 중국말 해보라면 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중국말을 시키니까 '나는 한국사람입니다'를 중국말로 표현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대체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선생님이 잘해주신다고 한다. 자신이 북한에서 온 것 숨기고 선생님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 발표할 때 자신을 자주 시키고 자신이 손들면 대개 발표하게 해주신다고 함. 학교외에서는 구문영어, 합기도, 컴퓨터등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자원봉사대학생들에게 과외공부도 한다고 함.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별로 없다. 누나 3명과 다투는일도 별로 없다. 자기일이 모두 바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논다(특별한 일자리가 아직 없는 듯)고 함. 저녁때 자시의 공부를 도와주시는 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나혼자 한다. 부모들이 공부의 내용 잘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 보다 버릇이 나빠졌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 부모님말씀에 '남한아이들 하는 짓 많이 따라 한다' 고 하신다.

남한아이들에 대한 인식: 남한아이들이 북한아이들보다 버릇이 없는 것 같다. 신발을 끄는 아이(여자)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주의를 주자 돌아서 가면서 문을 팡닫고 나가는 것 보고 매우 버릇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도 놀랐다. 나의 엉덩이도 찼다. 북한하고는 많이 다르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고려대 무역과를 나와서 (왜 고려대냐고 물으니까 좋은 대학이니깐이라고 말했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 제일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이다라고 하니까 서울대학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고려대학을 생각한다고 함. (어디서 부모님이나 다른 탈북자들에게서 들은 바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당장은 뭐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모님들이 좋아 하실 것 같다.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남한아이들이 춤 좋아하고 TV나오는 연예인들 관심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나?” “나도 좋아요. 좋지만 그런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아해요.” 노래같은 것도? 노래는 좋아해요. 춤이랑 좀 하고 싶기도 한데 공부해야 해요.(특별한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라기 보다는 막연히 공부해야 하는 것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또 인터뷰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부모님께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엄마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해주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바라는 것: 그냥 그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 집에 가는것보다 주로 친구들이 OO이 집에 온다, 거의 다 여학생들이 다. 남자들은 별로 없다. 같이 숙제하고 노래부르고, 배드민턴 치고등등 그냥 편안하게 한다. 남한아이들의 공부하고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더 잘해야지”하는 결심을 한다. 못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은 한적없나? 아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안한다.

연구자의 느낌: 15세면 중학교2학년 나이임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

년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다른 고연령에 비하여 중등연령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취동기가 강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신이 반에서 육체적인 힘에서 가장 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탈북청소년 H 15살 (여, 중학교 1학년)

한 주일 동안의 일을 말해달라: 지난 한 주 동안은 힘들어서 휴식했어요. 학교에 학교 안 갔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 해달라: 월요일에 학교 가면 공부하고... 자습시간이 9시까지예요. 그래서 아침 8시반까지는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해요. 8시 반 전에 가야해요. 9시부터 수업하구.. 쉬는 시간에는 피곤해서 잔다. 물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구요. 방과후에는 돌아가면서 분식집 같은데 가서 한번씩 쏘기도 하구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6명 정도인데 시험기간 힘들었으니까 뭐 우리 또 힘내서 공부 잘하자는 뜻에서 튀김, 떡볶이들을 사 먹어요. 저도 쏜 적 있어요. 저까지 합쳐서 7명이죠.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음. 다른 아이들과도 친하지만 그 6명과 제일 친함. 중학교 올라와서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애들끼리만 노는 것 같아요. 반이 16명이다 그러면 3-4명씩 친한 아이들끼리만 놀아요.

저는 3월 16일에 학교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 잘 대해 주었어요.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은 반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예기할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해서 학교에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첫날은 오후에 학급에 와서 인사하구요 저는 그냥가구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조회하는 시간에 아이

들에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등교했는데 아이들이 잘해주고 선생님께서 특별히 회장, 부회장 불러서 신경쓰라고 말씀하시고, 학교생활에 힘드는 것 없구요.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구요.

지난주에는 왜 학교를 못갔지?: 그냥 좀.. 그렇게만 말할수 있어요. 머리가 좀 아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적 있나? : 아뇨, 지난번에는 그런 적은 없구요. 제가 사춘기... 첫 번째 사춘기를 넘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하나 사춘기 세 번은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두 번더 학교를 못가겠네? 한번은 겨우 넘겼는데 아마 그거와 관계되어 그런거 같아요.

학교를 파하면 어디로 가나? 막바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나?: 아뇨. 일단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나가요. 친구들이 집에 올 때도 있고 딴 친구 집에도 갈 때도 있어요. 가면 뭐하나?: 아무튼 잘 놀아요.

남한아이들에 대해 처음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기적이다. 보편요. 자기 친한친구만 주고 나머진 상관안해요. 제일 친한 친구. 다같이 하려면 그러든가 해야 하는데 자기만 혹은 제일 친한 친구만...

커서 되고 싶은 것은?: 저는 탈렌트요, 탈렌트가 되면 좋은게 뭘까?: 좋은 거요? 그냥 제가 꿈이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아무튼 누구나 알아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깐요.

학과목에서 재미있는 과목은 ? 도덕, 국어, 음악 힘든과목은? 영어, 수학, 사회. 물상

부모님께서 저녁에 공부하는 것 도와주시나?: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면 아빠가 도와줌.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 비해 지금은 부모님은 힘드시나?: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다르니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같은 반에서 싫어하는 애나 미운애는 있나?: 있어요. 공부 좀 잘하는데 너무 잘난 척 해요. 우리반에 좀 못살고.. 못사는 건 아닌데.. 더러운 애. 살 좀 너무 썩 가지고 개옆에 가면 냄새나는데 ... 우리는 좀 돌봐주는 데 개는 “냄새나” “짜증나”할 때 “너만 잘난 척 하지마. 애도 사람인데 좀 더럽다 뿐이지. 너 공부좀 잘한다고 잘난척하고 그러냐?”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서운한 적은 없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남한사회에 나온지 8-9개월이 지났음.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아이들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같은 것: 저는요. 춤같은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춤은 잘 추나? 다른 아이들이 잘 춘다고 그래? 글썄요.

연구자의 관찰 및 느낌: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는 듯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친하다는 친구들말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는 정확한 판단이 안됨. 나름대로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심적 동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일주일동안 안가는 것에 대한 부모의 재제가 없는 것은 남한식 교육문화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재제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13세 소녀 2명 I, J (둘다 초등학교 3학년): 두 명을 함께 인터뷰 했음.

### 탈북청소년 I (여, 13세)

학교에서 생활: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공기놀이하고 집에 갈때는 친구2-3명과 같이가요. 미운친구도 있어요. 제가 공기 잘해서 1등인데요. 그래서 심술이 나서 날 나쁘게 대하구요.

가족생활: 한국온지는 아직 1년이 안 됐구요. 동생2명에 오빠 2명이구요. 부모님은 막내남동생을 제일 예뻐해요.

학교에서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빨갱이라고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장선생님께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놀리는 애 없었어요. 남자 친구는 없어요.

공부는 국어, 쓰기, 수학 다 좋아해요. 어려운 것은 영어, 수학을 어려워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시험점수는 백점 점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3학년하고 같이 하니까 백점 맞아도 당연하지. 계속 백점 맞아야지. 고학년 올라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와서는 공기놀이하고 TV보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부모님은 늘 공부를 좀 많이하라고 말씀하신다.

글짓기, 수학, 컴퓨터학원, 한자.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종합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6만원한다. 우리 둘 다 6학년인데 북한에 있을 때 3

학년 하다가 와서 지금 3학년 이에요.

애들이랑 우리하고 세 살차이 때문에 짜증나기도 해요. 그래서 5학년 친구들 하고 잘 놀아요. 저(I)는 6학년 올라가요.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왕따해도 6학년 보내 달라' 고했어요. 제 나이대로 보내 달라고 했어요.

학교친구들이라는 제일 처음 만날 때 북한에서 왔다고 서먹할때가 제일 어려워요.

### 탈북청소년J ( 여, 13세)

자습하고 공부하고 공기하고 그것밖에 안해요. 점심시간에 나가 놀아요. 친구들하구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친구들에게 얘기 안했어요.

엄마가 주로 동생숙제 봐주시고..

나는 피아노학원도 다녀요.

3학년 아이들이랑은 어려도 같이 놀아야죠. 할 수없어요. 짜증나도.

근데 지들끼리 옆에애랑 쑥덕쑥덕대고 그러면 짜증나요.

4,5학년 올라가도 재네들끼리만 모여서 놀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가만있어요.

(I가 6학년으로 간다는 말에 대응하여) 저는요. 자원봉사 언니오빠들한테 배워서요 열심히 해서요. 빨리 6학년으로 갈거예요.같은 반아이들이 어려서도 .....